

창세기

교재: 킹제임스 흡정역 성경(가능하면 한영대역)

8주 동안 읽어야 할 책: 1318 창조과학 A to Z(김재욱 저, 생명의 말씀사)
학기 중에 창세기 1-11장은 3번, 12-25장은 2번, 26-50장은 1번 읽어야 함.
이 두 가지를 완수하였음을 학기말에 서명해서 제출해야 함.

목표: 하나님의 6일 창조를 확실히 인식하고 하나님, 사람, 천사, 죄, 가정, 민족, 유대인 등의 기원을 정확히 이해하여 성경 전체를 바르게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하는 것

내용: 8주 동안 32시간에 걸쳐 창세기 1장부터 11장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아브라함의 일생, 유대인들의 기원 및 역사, 미래 등을 다룬다.

비디오 강의 34개 중에서 32와 33은 빼고 1부터 34까지 듣는다.

시험: 학기 중 4번 40분짜리 시험, 객관식 및 단답형 30-35 문제, 범위는 4주 동안 배운 것, 시험은 학기 주일에 교회에서 치름

의문 사항은 minister@cbck.org를 이용하기 바람.

창세기 강해 제1과

강해 노트 자료: www.KeepBible.com, 다운로드 자료실, C3TV 창세기 강해노트

교재: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 충판)

참고 서적: 한자에 담긴 창세기의 발견(미션하우스, C. H. 강, 넬슨), 창세기(상), 창세기 연구(하),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전도출판사, 헨리 모리스)

A. 성경

1. 영생을 주는 말씀(요5:39; 요17:3; 딤후2:15) ★★★적용
2. 계시, 영감(딤후3:16-17), 보존(시12:6-7), 번역, 해석
3. 킹제임스 흄정역 성경을 쓴다(신학과 교리를 정립해 준 성경, Bestseller, The Holy Bible).

B. 구약성경을 공부하는 이유

1. 구약이 없이는 성경이 완전하지 않다.
 - A. 구약은 신약의 기초이다(죄와 사망, 구속 등의 배경).
 - B. 신약은 결코 구약을 대체하지 않는다.
 - C. 구약은 기원과 예언(약속과 기대)을 담고 있고 신약은 예언의 성취와 완성을 담고 있다(눅2:25; 2:38; 3:15).
2. 구약이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해할 수 없다(마15:24). 메시아의 오심, 메시아가 죽어야 하는 이유, 십자가와 왕관, 두 번 오심(사53:10-12) 등
3. 구약은 기독교의 역사적 배경을 보여 준다.
 - A. 이스라엘의 유대교가 먼저 있고 그 뒤에 기독교가 나온다(롬15:8-9; 갈4:4-5).
 - B. 신약은 중요한 데서 구약을 인용한다(마4).
4. 구약은 거룩한 역사 기록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계시들이 다 여기서 발견된다: 하나님, 사람, 천사, 사탄, 심판, 구속, 구속자, 유월절, 이스라엘, 메시아, 천년왕국
5. 구약은 그리스도인의 영적 양식이다(딤후3:16-17; 롬15:4; 고전10:1-13): 죄에 대한 선고와 심판(창3), 하나님의 법(출20), 친양과 기도(시107), 이스라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섭리(시78), 하나님의 심판과 소망(슥14), 천년왕국과 메시아(삼하7:4-17; 사11:6-9; 사65-66; 슥14:9; 렘30:9; 갤34:23-24; 37:24-25; 40-48).

C. 창세기를 공부하는 이유

창세기는 크리스천 믿음의 기초이다. ★★★적용

창세기를 믿지 못하면 성경을 믿을 수 없고 성경의 그리스도를 믿기가 대단히 어렵다. ★★★적용

D. 성경의 해석

진리의 뜻을 발견하는 과정

1. 해석이란 성경 구절의 정확한 뜻을 결정하는 것이다.
2. 성경의 각 구절이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루어진다.

“성경의 목적은 너무나 분명하므로 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성령님께 직접 성경 말씀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을 수 있다. 성경에 관한 한 어떤 신비주의적 해석이 필요 없다.”(맥쿤)

3. 성경 신자들(Bible Believer, Biblicalist)은 문법적, 역사적, 신학적 해석을 취한다.
 - A. 문법적: 문맥에 맞추어 문자 그대로의 정상적인 의미를 취한다. 창세기 하루(출20:8-11), 므두셀라 969세(창5:27), 천년왕국(계20:2, 3, 4, 5, 6, 7)
 - B. 역사적: 역사적 시대, 수신자, 목적, 배경 등을 이해하고 문맥에 맞게 해석한다(겔37).
 - C. 영적: 내게 어떻게 영의 양식으로 적용하는가?(사43:1-3)
4. 천년왕국(에스겔서 40-48장): 문자 그대로 혹은 영구히 지속되는 하나님의 왕국
5. 비유 해석/문자적 해석의 예: 에스겔서 47장

에스겔 47장: 여기에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모습이 예언되고 있다. 성전의 문지방에서 물이 흘러나오는데 이것이 큰 강이 되어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으로 나타난다(5절). 그리고 강 좌우편에 나무가 심히 많고 강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많으며 바닷물(사해)이 소생함을 얻는다고 한다(9절). 이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할 수 있을까? 문자 그대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이 흘러 사해까지 적시며 사해를 생명의 바다로 바꾸고 고기가 살 수 있도록 할까? 이 예언의 배후에는 명백하게 에덴동산 이미지가 깔려 있음을 주목하라. 에덴동산에 흐르는 물과 모든 나무와 산의 모티프가 에스겔서에서 성전을 중심으로 새롭게 그려지고 있다.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요7:38)고 말씀하셨으로 에덴동산을 성령강림으로 재해석하셨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어린양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개의 실과를 맺는다고 한다. 즉 에스겔의 상징적인 강이 완성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에스겔은 에덴동산의 회복을 여기에서 바라보고 있지 문자 그대로 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흘러나올 것을 내다보고 있지 않다. 구약의 성전은 그 자체가 예표적이다. 성막은 하나님의 처소를 본 딴 복사판이다(출25:40; 왕상8:29-30). 성전은 하늘 성전의 그림자로서(히8:5) 하나님의 모형으로 주어졌다. 이 모형은 그림자로서 솔로몬의 돌 성전은 보다 완전한 것이 나올 때 폐기될 수 있었다(히10:9).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실제가 나타나고(요1:14) 종말론적인 새 예루살렘에서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다(계22). 이 성경신학적인 맥락 속에서 에스겔서의 강물과 나무 이미지를 이해하여야 한다.

문자적 해석: 천년왕국 때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고토에 돌아와서 땅에 성전을 세우고 거기서 나오는 물이 사해를 살리며 모든 지역을 옥토로 만든다고 믿는다.

이스라엘 대체신학: 천주교의 어거스틴에서 나와 칼빈을 거쳐 중세의 프로테스탄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지금도 많은 프로테스탄트들이 이런 거짓 가르침에 빠져 있다.

6. 비유 해석/문자적 해석의 예 4: 마10:5-6; 마15:24; 마28:19; 막16:15; 마23:37-39

창세기 강해 제2과

기원이라 하는 모세의 첫째 책

창세기

기록자: 모세, 기록 시기: 주전 1450년경, 성격: 역사, 기간: 약 2,315년(어서의 연대기)
수신자: 이집트 탈출 이후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온 인류(롬15:4; 고전10:11)

이름: 유대인들은 이 책을 '처음에'(In The Beginning)라고 불렀다. Genesis는 창세기를 가리키는 그리스어 책명 '제네시스'에서 나와 라틴어를 거쳐 영어로 정착된 이름으로 '기원'을 뜻한다.

주제: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 죄가 들어온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을 써서 여러 방법으로 일하시는 것

목적: 사람을 구속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와 계획을 온 인류에게 보여 주는 것(3:15, 21; 22:8; 마20:28; 요1:29; 갈4:4-5)

내용: 창세기는 창조주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것의 기원을 보여 주는 책으로 온 우주 만물의 창조, 사람의 창조, 가정의 형성, 죄의 기원, 사람의 타락, 회생 예물을 통해 하나님과 잠정적으로 관계가 회복되는 것과 여자의 씨인 메시아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최종적으로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 노아의 대홍수, 민족들의 발전,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 족장 시대 믿음의 사람들에 관한 기사, 요셉을 통한 이스라엘 민족의 이집트 진출 등을 담고 있다. 창세기는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특별히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과 그 뒤 죄가 은밀히 들어와 온 세상에 파멸과 죽음을 가져온 것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비극적 결과를 보여 준다. 창세기는 사람이 죽는 이유와 만물이 쇠퇴하는 이유를 명확하게 가르쳐 주므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기초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는 곧장 신약으로 연결되어 창세기의 말씀들이 신약성경의 17권의 책 속에서 60여 차례 인용되고 있다. 창세기는 생명으로 시작해서(1:20-28) 사망으로 끝난다(50:26). 창세기는 50장, 1,533절, 38,267 영어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핵심 장: 1장(창조), 12장(아브라함을 부르심)

핵심 절: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1:1)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고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으며 유일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승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핵심 단어: 처음(시작), 핵심 구: "처음에"(1:1)

창세기의 그리스도: 1. 여자의 씨(3:15; 마1:18-25; 갈4:4), 2. 아브라함의 씨(12:1-2; 갈3:29), 3. 우리의 화평이신 실로(49:10; 요16:33; 롬5:1), 4. 이스라엘의 돌아신 목자(49:24; 요10:11), 영적 교훈: "하나님과 함께 시작하라."(눅1:37; 요15:5)

(킹제임스 흡정역 스터디 바이블 혹은 한영대역관주성경의 창세기 도입 부분에서 발췌)

1. 창세기 이름(히브리어 베레쉬트, 처음에)

- A.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단순히 '토라' 즉 '율법'(The Law)이라고 불렀다(요1:45). 유대인들의 성경: 율법, 대언서, 성문서로 구성됨

2. 창세기의 목적

- A.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목적을 보여 주는 것
B. 인격적이고 자신을 계시하시며 언약을 맺는 하나님을 보여 주는 것
C. 히브리 백성의 초기 역사를 기록하는 것
D.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기 시작하는 것

3. 창세기의 특징

- A. 생명의 기원, 죄와 악의 문제, 이 문제의 해결 방법 제시
B. 하나님이 인류에게 허락하신 4개의 기관 혹은 제도(institutions) 중 3개를 보여 줌: 가정(2장), 인간 정부(9:1-17), 이스라엘 민족(12장). 다른 하나는 교회임(마16:18).
C. 창세기는 다양한 인물들의 역사를 기록한다: 아담과 이브, 개인과 아벨, 셋, 애녹, 므두셀라, 노아, 아브라함, 사라, 롯, 이삭, 리브가, 에서와 야곱, 열두 아들, 요셉, 유다 등

D. 창세기는 성경에 나오는 3가지의 가장 큰 언약 즉 무조건적인 언약 중 하나인 아브라함 언약(Abrahamic covenant, 12:1-3, 땅과 민족과 복)을 기록한다. 나머지 2개는 다윗 언약(Davidic covenant, 삼하7:9-16)과 새 언약(New Covenant, 렘31:31)이다.

4. 창세기와 다른 책과의 관계

A. 계시록

- a. 창세기는 인류의 첫째 반역을 기록하고(3:1-6) 계시록은 마지막 반역을 기록한다(20:7-10).
- b. 창세기는 죄의 시작을 기록하고(3:1-6) 계시록은 죄의 종식을 기록한다(20:10; 21:4-8).
- c. 창세기는 저주를 기록하고(3:9-19) 계시록은 저주의 제거를 기록한다(22:3).
- d. 창세기는 죽음의 시작을 기록하고(3:19) 계시록은 죽음의 종식을 기록한다(21:4).
- e. 창세기는 지금 있는 하늘과 땅의 창조를 기록하고(1:1) 계시록은 새 하늘과 새 땅의 창조를 기록한다(21:1). 사탄, 생명나무 등의 대조

B. 로마서

- a.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족장(조상)으로 나오지만 로마서에서는 믿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나온다(롬4:16). (주의: 육체적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님), 첫 아담, 마지막 아담

C. 요한복음, 요한일서

- a. 셋 다 처음을 다루지만 창세기의 처음은 창조의 처음을, 나머지 두 책의 처음은 창조 이전의 영원 전 처음을 다룬다.

D. 갈라디아서

- a. 둘 다 믿음에 의한 구원을 말한다(창15:6; 갈3:6).
- b. 둘 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원하는 것을 보여 준다(창12:2-3; 갈3:8).

5. 창세기 개요

- A. 하나님과 인간(1-11): 창조(1:1-2:3), 에덴동산(2:4-25), 타락(3), 개인과 아벨(4), 아담부터 노아까지(5), 홍수(6-9), 노아의 후손들(10), 바벨탑(11:1-9), 셈부터 아브라함(11:10-32)
- B. 하나님과 족장들(Patriarchs) (12-50): 아브라함(12:1-25:10), 이삭(25:11-27:46), 야곱(28-36), 요셉(37-50)

6. 창세기의 중요한 구절

- A. 세대들이 이리하니라(These are the generations of Noah, 10회, 히브리어 ‘톨레도트’, OT:8435, 창2:4;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6:9; 37:2), ‘톨레도트’에서 ‘게네시스’가 나옴.

창세기 강해 제3과

1.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의 다른 부분을 믿는 데 전혀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 한 구절은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그릇된 이론을 산산조각 낸다.

하나님이 계시므로 무신론은 존재할 수 없다.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물은 전혀 다른 차원에 있으므로 범신론도 존재할 수 없다.

유일한 하나님인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므로 다신론도 무효하다.

하나님이 온 우주를 창조하셨으므로 물건이나 천체를 숭배하는 유물론도 무효하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므로 진화론도 성립되지 않는다.

A. 진화론(빅뱅 이론): 200억 년 전에 대폭발에 의해, 에너지 및 물질 보존의 법칙에 정면 대립

a. 빅뱅: 100-200억년 전

b. 지구: 50억년 전

c. 사람과 원숭이의 공통 조상: 5천만년 전

d. 사람: 100만년 전

e.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f. 저등 생명에서 고등 생명으로

g. 종의 변화

B. 우리는 히11:3에 의거하여 믿음으로 창조가 이루어졌음을 믿는다.

진화론자도, 무신론자, 불가지론자도 다 자기 주장이 맞는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C. 믿음이란 무엇인가?(고후5:7)

a. 믿음(Faith): 어떤 진리를 이해하며 동의하는 것.

b. 기독교의 믿음은 하나님의 계시의 진리와 그 안에 있는 사건들과 교리들을 인정하고 동의하는 것.

c. 어떤 대상에 대한 신뢰의 태도로서 그 대상이 반응하게 만드는 것.

d. 믿음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는 그 대상에 의해 결정되므로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는 대상임.

e.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믿음의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므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그분에 대한 신뢰 태도이며 그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 속에서 그분의 성품과 능력을 나타내도록 허락하는 것임.

f.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구원자요 왕이요 대언자요 대제사장으로 받아들이며 그분을 그런 존재로 인정하고 그분에게 순종한다. 바로 이런 믿음을 통해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얻으며 이런 믿음이 없이는 아무도 죄들의 용서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다.

g. 이런 믿음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신실한 마음의 근원이 되며 삶에서 그리고 행위에서 열매로 표출됨.

h. 믿음이 단지 역사적 믿음일 때에는 우리의 삶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결국 마귀들의 믿음 같이 죽은 믿음이 됨(약2:19).

i.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이 믿음으로 살고 결을 수 있으므로(막16:16; 요3:15-16; 행16:31; 요일5:10) 이런 믿음이야말로 그리스도인 삶의 원천이라 할 수 있음.

j.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과 육신과 마귀를 이기고 의의 관을 얻음(딤후4:7-8).

k. 이런 믿음으로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은 놀라운 이적을 이루었음(히11:1-40; 행14:9; 고전13:2).

l. 참된 믿음은 그것의 열매로 인하여 온 세상에 두루 알려짐(롬1:8).

m. believe와 faith의 차이: believe(요3:16, 롬10:10 등), faith of Jesus Christ(갈2:20; 벨3:9), faith in his name(행3:16; 롬3:25; 갈3:26), 믿음의 창시자(히12:2)

D. 세상들이란 무엇인가?

히1:2; 11:3 세상들(worlds): 창1:1의 하늘과 땅을 뜻한다. 지구 외의 모든 세상, 어떤 사람은 식물 세상, 동물 세상, 인간 세상 등으로 이해하기도 함. “뉴욕에 갔더니 거기는 딴 세상이더라고.”, 매튜 헨리는 땅을 중심으로 땅 세상과 땅 위 세상과 땅 밑 세상으로 분류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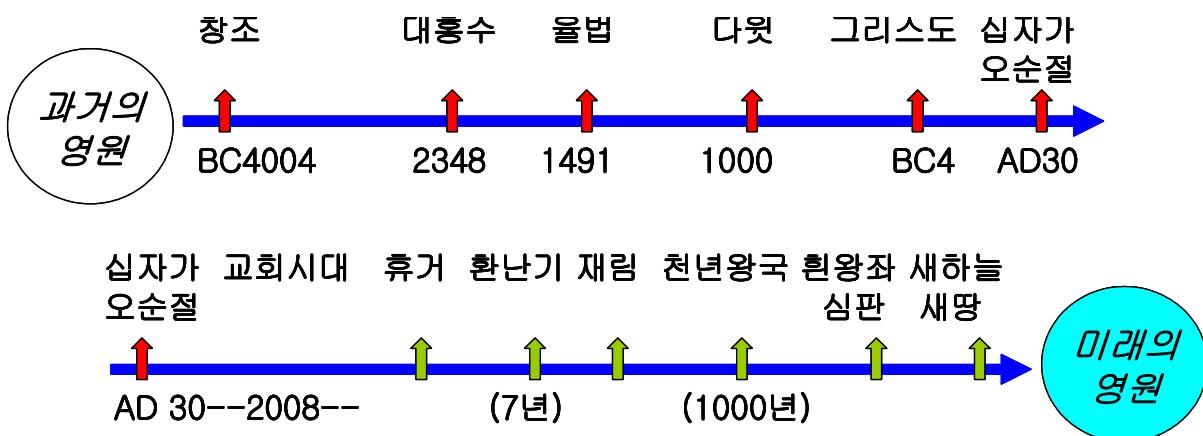
E. 창세기 1장의 하나님: 엘로힘, 창조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창1:1-2:3까지 34회): 주권자, 통치자 (창1:1; 히11:3, 무에서 유 창조), 하늘과 땅의 창조주, 소유자(행17:24), 여호와 하나님은 2:4에 처음 등장

F. 첫째 날: 하늘과 땅을 만듦, 지구와 우주 공간을 뜻함(2:1 참조)

창세기 강해 제4과

1. 창1:1-5: 첫째 날, 하늘과 땅, 빛과 어둠, 하늘에는 세 하늘이 있다(고후12:2).
하늘들(창2:1)

성경의 연대



창조 이론: 1. 문자 그대로의 6일 창조, 2. Day-age 이론, 3. Gap 이론, 4. 유신론적 진화론

유대인들의 증언: 요세푸스(AD 37-100년)의 「유대고대사」(*Antiquities of the Jews*), 「유대전쟁사」
Biblicist들의 증언: BC 4004년경에 창조가 이루어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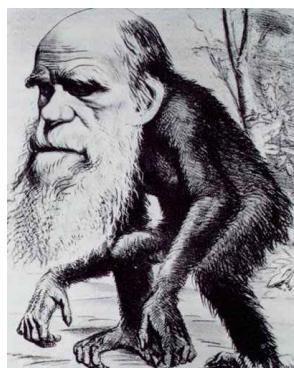
2. 창1: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하나님의 신 No)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시니라.

A. 간극 이론(Gap theory)

1) 1850년대 이후: 진화론, 공산주의, 성경 오류성 등이 등장

Charles Robert Darwin (1809-1882), an English naturalist, 약학, 신학 공부, 현대 동성애학의 아버지, 5년 간 비글호를 타고 탐험하면서 지질학자 노릇을 함. Charles Lyell의 균일론(uniformitarian ideas)을 지지하고 자연 선택의 진화론을 발표함(1838).



1859, 「종의기원」(*On the Origin of Species*)

B) 교회의 대응

1. 간극이론

Thomas Chalmers(스코틀랜드)

George Hawkins Pember(1837- 1910), known as G. H. Pember, an English theologian 「초기 지구의 연대」(*Earth Earliest's Ages, and Their Connection with Modern Spiritualism and Theosophy*, 1876) – reckoned by some as his masterpiece.

내용: 창1:1절은 원래 창조이며(수억 년 전에 이루어짐) 사탄의 반역(사14; 갤28)으로 인해 지구가 2절처럼 되었고(was가 아니라 became) 3절부터는 재창조임. 마귀들은 그 전에 살던 존재들임.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2. 「스코필드 성경」

Cyrus I. Scofield,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King James Version text, it first appeared in 1909 and was revised by the author in 1917. 1917 edition also

attempted to date events of the Bible. 캡 이론과 세대주의의 확산, 근본주의자들의 성경, 참조 「톰슨성경」

추종자들: 1980년대 이전의 대부분의 세대주의, 근본주의자들(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라킨 (Dispensational Truth), 반하우스, 럭크맨 등.

1960년대 이후의 창조과학회 활동 등으로 인해 지구의 생성 연대가 몇 천 년 정도 되었음이 밝혀지면서 재창조를 믿는 사람들은 급격히 줄어들어 지금은 그리 많지 않음.

창세기 강해 제5과

1. 간극 이론 반박

간극 이론은 성경의 교리와 배치된다(롬5:17-19). 사망은 아담 이전에 존재할 수 없다.

간극 이론은 예수님의 말씀과 배치된다(막10:6). 하나님은 창조의 시작부터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음. 재창조라는 말은 성경 어디에도 나오지 않는다.

간극 이론은 구약 성경의 다른 부분과 배치된다(느9:6-...). 인류 역사 review

간극 이론은 역사적 데이터와 배치된다: 요세푸스

간극 이론은 과학적 데이터와 배치된다: 지구와 우주의 생성 연대는 매우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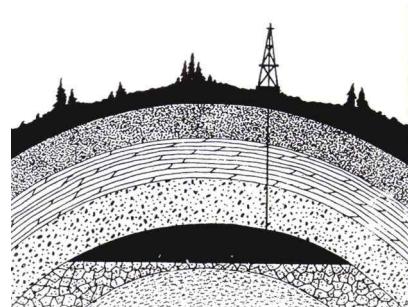
지구의 자기장: 지구 자기장의 세기는 1,400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다. 만 년 전까지 역으로 추산해 보면 그때의 지구는 마치 자석별(magnetic star)의 자기장만큼이나 강한 자기장을 갖고 있다는 결론에 다다르게 된다. 지구의 자기장은 지구의 핵심에 있는 순환 전류 때문에 형성되는데 만일 우리가 약 2만 년 정도까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간다면 이 같은 전류에 의해 생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열이 이미 지구를 녹여 버렸을 것이다.

유성 먼지: 지구는 연간 약 1,400만 톤의 먼지를 받아들인다. 지구의 나이가 약 50억 년이라고 가정한다면 전 세계에는 약 60m정도의 두께를 가진 유성 먼지 층이 있어야만 한다. 달에서조차도 우주비행사들은 이런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다(약 1mm 두께의 먼지 층만 있음).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 미시시피 강의 삼각주의 퇴적물 증가 체적과 증가율을 세밀히 연구해서, 삼각주의 총 무게를 매년 쌓이는 퇴적물의 무게로 나누어보면 삼각주의 나이는 약 4,000년 정도로 계산된다.

석유와 천연가스: 석유와 천연가스는 지하 저장 장소에서 비교적 침투성이 없는 ‘덮개 암석’(cap rock)에 의해 고압이 유지된 상태로 저장되어 있으며 이 저장고의 압력은 매우 높다. 덮개 암석의 침투성 측정을 근거로 하여 계산을 해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압력이 이런 상태로 만 년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이 드러난다.

지구의 자전: 지구의 자전 속도는 지구에 대한 태양과 달의 중력, 저항력과 다른 원인들로 인해 점차 느려지고 있다. 만일 지구의 나이가 수십 억 년이며 또한 지구의 자전 속도가 일정하게 감속되었다면, 현재 지구의 자전 속도는 “0”이 되어야만 한다.



달의 퇴행: 지구로부터 달이 퇴행한다는 사실은 지구와 달의 형성 연대가 비교적 짧다는 것을 보여 주는 또 다른 간단한 증거이다. 현재 달의 퇴행률은 잘 알려져 있으며, 이것은 지구와 달의 형성 연대가 그리 길지 않음을 분명하게 보여 주고 있다.

인구 증가: 모리스(Henry Morris) 박사는 인구 증가율을 현재 인구 증가율의 $1/4$ 인 1년당 평균 0.5% 정도로 가정하면, 현재의 전 세계 인구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단지 4,000년밖에 걸리지 않음을 간단한 계산으로 보여 준 바 있다.

C. 정상적인 해석: 땅과 우주 공간을 만드시고 2,3,4,5,6일에 필요한 것들을 거기에 채워 놓으심.

2. 창1:1, 2의 땅(지구)의 중요성

지구와 태양 중 어느 것이 움직이는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오, 뉴턴 이전에는 모두 천동설(Geocentricity)을 믿었으나 그 이후에(1543년) 코페르니쿠스의 지동설(Heliocentricity)을 믿게 됨. 성경은 천동설을 지지함(태양은 넷째 날 창조됨, 전1:5; 수10:13)(루터, 칼빈, 헬즈 등).

천동설(지구 중심설)이든 지동설이든 상대적인 움직임을 이해하면 우주 공간의 일을 위한 계산에는 전혀 차이가 없다(<http://www.geocentricity.com>를 참조하기 바람, 마하 넘버의 창시자, Ernst

Mach).

예: 지구의 공전 속도 29.76km/sec, 자전 속도: 463m/sec(음속 340m/sec, 비행기 240m/sec)보다 빠름.

둘째 날의 궁창(firmament): $4 \times 10^{93} \text{kg/m}^3$, 물 10^3kg/m^3 , 그 안에서의 변화에 대해 순식간에 반응한다.

미켈슨 - 게일 실험: 지구가 회전하지 않음을 증명함, 해와 별들을 포함하는 궁창 하늘이 엄청나게 무거우면 궁창에 비해 별들은 매우 가볍고 이 경우 우주 전체가 회전하는 일이 가능하다.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요, 땅은 그분의 발받침이다(사66:1).

창세기 강해 제6과

3. 창1:2의 깊음과 성령님

깊음(OT8415, 테홍): 심연, 깊은 구렁, 신구약 27회, 구약에서는 많은 경우 이런 의미로 쓰임(창8:2), 신약(NT3588, 아브소스, 뉘8:31)

하나님의 왕좌 앞의 진짜 물로 보는 견해: 깊음의 표면(창1:2; 롬38:30), 거기의 물들이 얼어 있다(롬41:32). 유리 바다(계4:6; 15:2).

온 우주 공간에 빛이 없음(겔37:2-3의 마른 뼈들과 같은 상태).

드디어 성령님이 일하기 시작함(욥26:7-10, 13; 시33:6).

성령님의 일은 형태가 없는 것을 형태 있는 것으로, 빈 것을 채우고,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죽은 것을 살리는 것이다(겔37:9-10; 고전15:45; 요3:5-6).

당신에게 성령님이 들어와 일하신 적이 있는가? ★★★★적용

창세기 1장 창조 요약

| 날 | 절 | 창조 내용 |
|---|-------|---------------------|
| 1 | 1-5 | 땅, 우주, 공간, 시간, 빛 |
| 2 | 6-8 | 궁창 |
| 3 | 9-13 | 육지, 바다, 풀, 채소, 과일나무 |
| 4 | 14-19 | 해, 달, 별들 |
| 5 | 20-23 | 물고기, 고래(포유류), 새 |
| 6 | 24-31 | 사람과 짐승 |

창1:3 빛의 창조, 성경에서 하나님이 처음으로 말씀하심(고후4:6 참조).

빛: 태양 빛이 아니다(시74:16; 딤전6:16; 약1:17; 계21:22-23).

낮(Day)의 히브리어는 따뜻함, 불, 번개, 온기 등의 뜻이 있고 밤(Night)의 히브리어는 그 반대의 뜻이 있다. 빛 에너지 혹은 하나님 자신의 빛 혹은 모든 질서의 근원이 되는 빛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비하면 햇빛은 아무것도 아니다.

창1:4 보기 좋았더라(8절만 빼고, 10, 12, 18, 21, 25, 31절에는 매우 좋았더라(사람과 짐승)).

하나님은 나누는 일을 많이 하신다(Divider). 딤후2:15, 레11, 마13:40-41, 율법과 은혜, 이스라엘과 교회, 하나님과 우상들(고후6:14-18), 사람들 구분(고전10:32)

창1:5 그 빛을 낮이라 함. Day, not day.

성경의 날: 24시간 하루, 1000년(벧후3:8), 경륜(히3:15; 고후6:2), 심판을 시작하는 때(벧후3:7; 뉘19:42-44), 주의 날(사2:12; 13:9; 롬2:1-2), 그리스도의 날(빌1:10; 살후2:2)

낮도 밤도 주의 것이다(시74:16). 하나님께는 빛과 어둠이 같다(시139:11,12; 속14:6-7).

저녁과 아침: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후 6시가 하루(레23:32)

창세기 강해 제7과

둘째 날

창1:6 궁창: firmament; firm, 엄청난 밀도, 궁창은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둘째 하늘이다(1:14-19; 롬26:7).

궁창 위의 물들:

- 대기 중의 수증기로 보는 견해, 이것은 문제가 있다(땅에 비가 없었음(창2:5), 무지개가 창9:13에 나옴)
- 우주 공간의 엄청난 중기 막(노아의 홍수의 물들: 창7:11의 하늘의 창들)
- 하나님의 왕좌 앞의 진짜 물로 보는 견해: 깊음의 표면(창1:2; 롬38:30), 거기의 물들이 얼어 있다(롬41:32). 유리 바다(계4:6; 15:2).

천년왕국에는 물들과 물들 사이에 궁창이 있다(시148:4).

창1:8 이 날에는 ‘좋았더라’가 없다. 앱6:10-12와 상관이 있는 것으로 보임.

셋째 날

창1:9-10 육지와 바다(롬38:4; 시104:5-8), 물의 두께(약 2.7km 높이)

성경의 바다 용례: 어디든지 물이 고여 있으면 바다이다(갈릴리 바다, 사해 등)

창1:11-12 풀과 채소와 과일 나무

이것들은 이미 다 자란 상태로 씨를 가지고 있었다(씨가 먼저가 아님). 맑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자기 종류대로(1장에만 10번; 창7:14; 8:19), 종의 변화는 없다(고전15:38, 39).

넷째 날

창1:14-16 천체들의 창조, ‘또 별들도 만드시고’는 별들이 그리 큰 의미가 없음을 시사한다.

천체 숭배(신4:19; 왕하21:5-6; 롬31:26-28), 그리스도인은 사주팔자와 상관이 없다(골1:16; 2:15)

다섯째 날

창1:20-23 고래, 물고기, 날짐승(마6:26; 10:29)

성경과 영어의 물고기(fish) 용례: 물에 사는 창조물은 다 물고기이다.

큰 물고기(욘1:17)=고래(마12:40),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붙여 줌(중요해서; 창2:19-20).

여섯째 날

창1:24-25 짐승, 종류대로

창1:26-28 사람 창조(시8:5-8)

우리의 형상으로

A. 형상(image): 1. 조각품, 우상(출20:4; 신9:12 등)

하나님의 형상(창1:26, 27(2회); 9:6), 하나님의 모양(창1:26; 5:1)

창세기 강해 제8과

우리의 형상으로

- A. 형상(image): 1. 조각품, 우상(출20:4; 신9:12 등)
하나님의 형상(창1:26, 27(2회); 9:6), 하나님의 모양(창1:26; 5:1)
- B.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히1:1-3; 골1:15; 고후4:4). 그러므로 여기의 형상은 인격을 뜻한다.
하나님의 성품, 지정의, 지배권, 도덕적, 영적 모습에서 같다.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둘째(마지막) 아담이라 불린다(고전15:45)
- C. 하나님이 삼위일체이므로 사람도 그렇다(창2:7).
- D. 하나님의 영(성령님), 하나님의 혼(아버지), 하나님의 몸(아들, 요14:1-8)
- E. 사람의 영, 혼, 육(몸): 히4:12; 살전5:23

영(히 루아흐, 스트롱 번호 7397)

영(창1:2), 숨(6:17), 바람(창8:1), 영(겔37:1), 숨(5), 바람(9)

- A. The Greek word ‘pneuma’ is used 385x in the KJV New Testament and is translated:
Spirit 111, Holy Ghost 89, Spirit (of God) 13, Spirit (of the Lord) 5, (My)
Spirit 3, Spirit (of truth) 3, Spirit (of Christ) 2, human (spirit) 49, (evil) spirit 47,
spirit (general) 26, spirit 8, (Jesus’ own) spirit 6, (Jesus’ own) ghost 2, misc. 21.
- B. The Hebrew word ‘루아흐’ is used 378x in the KJV Old Testament and is translated:
Spirit or spirit 232, wind 92, breath 27, side 6, mind 5, blast 4, vain 2, air 1,
anger 1, cool 1, courage 1, misc. 6.
- C. 영(루아흐)의 원래 의미: 보이지 않으면서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는 힘(Spirit in its basic meaning is an invisible effective/affective force, hence, wind, etc). 그러므로 루아흐는 문맥에 따라 번역한다.

- 1. 성령님: 삼위일체의 한 인격체인 성령님은 대언자들을 움직여 말씀을 기록하게 하고(벧후1:21), 선한 사람을 움직이며 성도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고(요일2:27), 생명을 준다(요3:5-6; 고전15:45).
 - a. 성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복을 받는다(마28:19; 고후13:14).
 - b. ‘거룩하다’는 holy와 영(spirit)이 붙으면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한다(시51:11).
 - c. holy가 없더라도 Spirit처럼 대문자 S가 쓰이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 인격체인 성령님으로 이해해야 한다(창1:2; 삽3:10; 마4:1). Spirit이라 쓰일 때는 셋째 인격체이신 성령님께서 무언가 일하면서 영향을 미치는 데 강조점이 있다.
 - d. Holy Ghost(마1:18; 12:31; 28:19): 삼위일체 하나님의 셋째 인격체를 강조할 때(외적으로 분명이 구분되는 분에 초점을 맞출 때) 쓰인다. 여기서는 영향이 아니라 독특한 인격체를 강조한다. Holy Ghost는 구약에 나오지 않는다.
- 2. 숨. 이것은 사람과 짐승에게 공통적으로 있는 호흡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숨을 주시고 생명을 취하실 때에 호흡을 가져가신다(전3:21). 개역성경은 이것을 ‘혼’으로 번역함.
- 3. 사람을 구성하는 세 요소인 몸과 혼과 영의 한 부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관.
 - a. 이것은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판단하는 기관이다.
 - b. 모든 사람은 영을 갖고 태어나지만 구원받기 전에는 영이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므로 “영적으로 죽어 있다”(엡2:1).
 - c. 벤전3:19의 ‘감옥에 있는 영들’은 노아의 대홍수 이전에 살면서 노아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은 죄인들을 가리키며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노아를 통해 그들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그들에게 회개와 심판을 선포하셨다(벧후2:5). 이것은 마치 그리스도께서 예배소에 가서 직접 선포하지 않고 바울을 통하여 하였으나 그분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했다고 기록하는 엡2:17과 같은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

4. 천사(히1:14; 마10:1). 사두개인들은 천사나 영을 다 부인하였다(행23:8).
 5. 기질, 성품. 질투의 영, 행음의 영, 기도의 영, 병약하게 하는 영, 지혜와 명철의 영, 주를 두려워하는 영(호4:12; 습12:10; 뉴13:11; 사11:2).
 6. 거듭난 신자들의 새로운 본성.
 - a. 이런 차원의 영은 육신 혹은 육 혹은 육체와 반대가 된다(요3:6).
 - b.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혹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새롭게 된 사람은 담대하게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으며(롬8:15) 육신과 함께 그것의 애착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갈5:24).
 7. 영을 분별하는 것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속하는가 마귀에게 속하는가를 구분하는 것이며 이로써 진리와 오류를 판단할 수 있다(요일4:1-3). 사도 바울은 복음의 초기에 영을 분별하는 선물(은사)이 있음을 보여 주었고(고전12:10) 또한 사도들이 보여 준 사도의 권능에 따라 참 사도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라고 하였다(고후12:12).
 8. ‘성령을 억누르는 것’(살전5:19)은 (quenching) 불처럼 일하시려는 성령님에게 물을 끼얹어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뜻한다. 이 말은 곧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죄와 무지와 욕심 등으로 인해 성령님의 소욕을 방해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9. ‘신성모독 죄’(성령 훼방 죄)(마12:31; 막3:28)
 10. 성경은 짐승에게도 영이 있다고 말한다(전3:21). 이 구절의 영 역시 영이나 바람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루아흐’를 번역한 것으로 여기서는 사람 및 짐승과 관계가 있으므로 마땅히 영이 되어야 한다. 성경은 전3:19에 있듯이 사람이나 짐승이 다 숨을 가졌고 영을 가졌음을 분명히 보여 주며 노아의 대홍수 때에도 사람과 짐승 등 코에 생명의 숨을 가진 육체만 죽임을 당했다(창2:7; 6:17; 7:15; 7:22).
 - a. 한편 하나님께서는 짐승도 영을 가졌으므로 특별히 허락을 받으면 말을 할 수 있음을 보여 주시기 위하여 민22에서 단 한 번 나귀가 말하는 기사를 영감으로 기록하셨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자 영을 가진 나귀는 곧바로 천사를 알아보고 말을 하게 되었다.
 - b. 짐승의 영은 죽어서 소멸되므로 짐승은 영을 가졌으나 천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는 상관없다.
- D. 영에 대한 결론: 하나님의 영, 사람의 영, 천사는 영원히 존재하지만 짐승의 영은 죽으면 소멸된다.

창세기 강해 제4과

혼(Soul)

성경에서 혼은 사람을 구성하는 몸과 혼과 영의 세 요소 중 한 부분을 가리키기도 하고 사람 자체(Self)를 가리키기도 한다(창2:7). 세 요소 중 하나일 때에는 자기를 의식하는 기관이다.

히브리어 네페쉬는 구약에 755회 나오며 428회는 혼으로, 117회는 생명으로 번역됨, 그리스어 프수케도 혼 혹은 생명으로 번역됨

- A. 혼의 불멸은 계시 종교의 근본 교리이며 고대의 족장들은 이 같은 진리를 확신하고 이 땅에서 살면서 다가오는 영원한 삶을 고대하고 그 안에서 약속들을 받았다(삼상28:13-15(사무엘); 삼하12:23(다윗); 롬19:25-26; 마22:32; 히11:13-16 비교). 또 우리 주님은 혼의 불멸 그리고 혼의 소중함 등을 몸소 보여 주셨다(마10:28; 16:26; 고전15:45-57; 딤후1:10).
- B. 성경은 생명을 부여하는 부분 즉 혼이 숨 속에 있으며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숨과 함께 혼이 떠난다고 가르친다(창35:18).
- C. 그래서 히브리, 그리스 성경에서 사람을 가리키는 ‘혼’이라는 말은 종종 생명, 호흡 등으로 번역되었다(창7:15; 시104:29; 행17:25).
- D. 사람과 짐승 모두에게 공통으로 있으며 짐승의 경우 몸과 함께 사라지는 생명 외에 사람 속에는 사람의 생각과 사랑과 사고를 지배하는 불멸의 혼이 있다. 이 혼 때문에 사람은 짐승과 확연히 구별되며 바로 이 점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과 닮았다(창1:26; 2:7). 혼은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다. 왜냐하면 혼이 생각하고 영원히 불멸하기 때문이다(눅16:23, 24; 계6:9).
- E. 성경에서 혼은 사람 자체를 가리키기도 한다. “누룩 있는 뺨을 먹는 혼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리라” (출12:15; 창17:14 등 참조). 그래서 사람을 주님께로 데려오기 위해 전도하는 것은 ‘혼을 구원하다’의 뜻을 가진 ‘soul winning’이라 한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서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에도 하나님은 많은 혼을 구원하셨다(행2:41). 또 하나님은 사람의 혼을 구하는 자를 지혜롭다고 하신다(잠11:30).
- F. 영어 성경에는 혼(soul 혹은 souls)이라는 단어가 536회 나오는데 기존의 우리말 성경은 히4:12, 살전5:23 같이 꼭 혼이 나와야 되는 구절에서만 혼으로 번역했고 대부분의 경우 ‘영혼’ 혹은 ‘자’(者) 등으로 바꾸어서 혼의 개념을 모호하게 만들었다.
- G. 하나님의 혼: 내 혼이 기뻐하는 자(레26:11, 30; 사42:1)

영과 혼에 대한 결론: 사람은 영이 아니라 영을 가지고 있다. 영에서 나오고 영을 통해 영구히 지속되는 혼 안에 개개인의 특성 - 성격, 그 자신 - 등이 들어 있다. 롬33:4, 나를(soul) 만드시고, 하나님에 의해 혼은 유지되다가 영이 그분께로 돌아가면 역시 몸을 떠난다.

몸(Body)

혼과 영이 거하는 부분(살전5:23). 세상을 의식하는 기관.

- A. 구원받은 자의 몸에는 성령님이 거하시며(고전6:19; 벤후1:13-14) 이런 몸은 하나님의 소유이므로 (고전6:20) 이 몸의 모든 지체는 마땅히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롬6:13, 19).
- B. 사도 바울은 신약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라 부른다(엡1:23). 이 몸은 성령님의 침례 사역으로 형성되며(고전12:13) 이를 통해 신자가 그리스도와 또 신자끼리 연합한다(롬6:3-4; 갈3:27).
- C. 사도 바울은 본성에 속한 몸(natural body)과 영에 속한 몸(spiritual body)에 대해 말하는데(고전 15:44; 빌3:21) 후자는 영화로운 몸으로 더 이상 죄나 죽음이나 자연의 법칙에 저촉 받지 않는 몸이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 결론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은 사람에게 짐승과는 다른 도덕적, 영적 특징이 있음을 보여 준다.

- A. 실제로 하나님은 모습은 없지만 사람과 같이 보고(창16:13), 듣고(시94:9), 냄새 맡고(창8:21), 만지고(창32:32), 말하신다(벤후1:18). 이것들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이다(의지, 능력 등).
- B. 또 하나님은 원하실 때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창18:1-2).
- C. 사람의 몸은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 D. 창세 전에 하나님은 자기의 아들을 위해 한 몸을 준비하셨다(히10:5; 뉴1:35). 그런데 이것은 사람의 모습이었다(빌2:7).
- E. 이런 차원에서 사람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과 모습으로 만들어졌다.
- F. 하나님의 형상 3회(26, 27 두 번):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삼위일체

삼위일체 하나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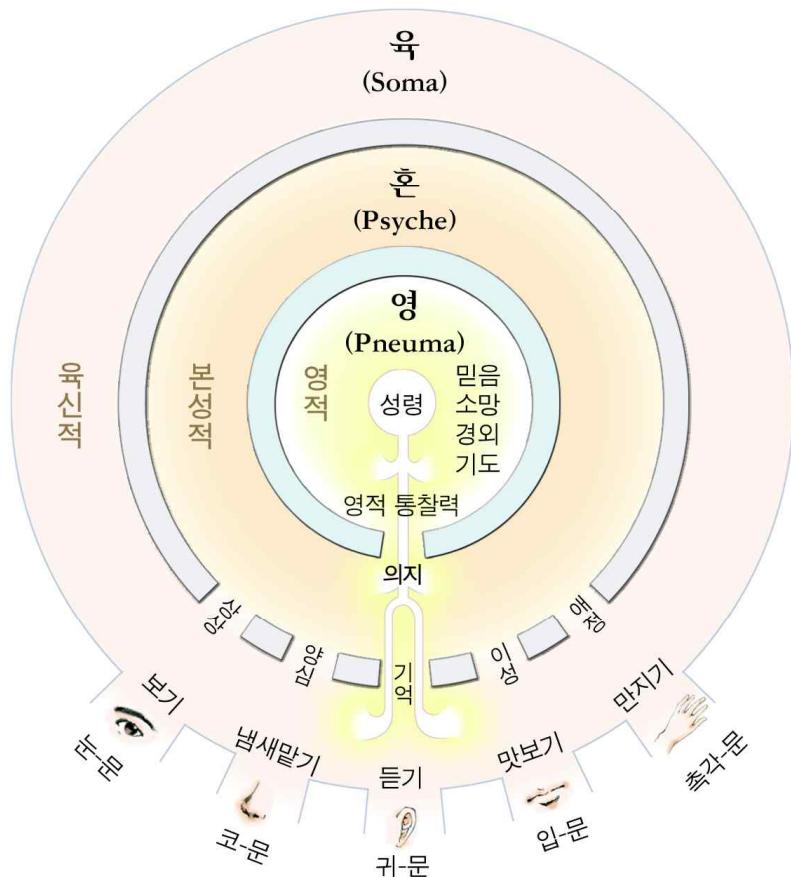


하늘에 중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 니라(요일5:7).

삼위일체는 하나님의 속성 중 가장 특이한 것이다. 삼위일체란 ‘하나님이 한 분이 아니고 아버지, 아들, 성령님의 확연히 서로 구분되는 세 인격체가 한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삼위일체는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한 하나님으로서 이 세 인격체 중 하나가 없으면 한 하나님으로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에도 이런 예가 있다. 시간은 반드시 과거, 현재, 미래가 있으며 각각이 다 시간이고 이 셋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시간이 아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물체는 공간을 차지하면서 반드시 길이(x), 너비(y), 높이(z)를 가지고 있으며 이 중 하나가 없으면 더 이상 물체가 아니다. 아버지, 아들, 성령님은 영원 전부터 스스로 존재하시며 각각의 인격체가 완전하고 동등한 분이시며 어느 인격체도 다른 인격체에게 종속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속성은 여럿이지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만드는 근본 속성은 그분의 거룩함이다. 하나님은 죄를 보면 즉시 심판하는 공의의 하나님으로 죄인은 그분 앞에 설 수 없다.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유일한 희생물은 죄가 없으신 아들 하나님뿐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발동되어 아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만족시켜 완전한 대신 속죄를 이루셨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삶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공의와 거룩함이다(벧전1:15,16). 성도들이 사랑이라는 엔진이 달린 기차를 운행할 때 반드시 공의와 거룩함이라는 레일 위에서 움직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받지 않은 사랑으로 인해 교회와 사회에 혼란과 무질서가 생긴다. 따라서 교회에서 공의와 사랑이 갈등을 일으킬 때 공의를 택해야 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따라야 할 근본 속성이기 때문이다.

사람의 세 가지 본질



평강의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히 구별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살전5:23).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털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절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문이시니(히4:12)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진 사람 역시 하나님처럼 영과 혼과 육의 세 부분으로 구성된 삼위일체 존재이다. 다만 아버지, 아들, 성령 하나님이 각각 개별적으로 완전한 하나님인 것과는 달리 사람의 영과 혼과 육은 개별적으로 각각 완전한 사람이 되지 못한다. 몸은 세상을 의식하고 혼은 자기를 의식하며 영은 하나님을 의식한다. 모든 사람은 영이 죽은 상태로 태어나서 본성으로는 하나님을 의식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이 주시는 믿음을 받아 자기의 의지의 문을 열고 자신을 주님께 내어 맡기며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들일 때에 죽은 영이 살아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마귀는 주로 보는 것을 통해 혼에 접근하려 하며(창3:6; 수7:21; 삼14:2; 삼하11:2; 요일2:16) 하나님은 듣는 것을 통해 혼에 접근하신다(롬10:17).

창1:26 여기의 사람(26절)은 히브리말에서 아담이고 ‘흙, 땅’을 뜻한다(창2:7).

또한 원래 사람은 남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남녀를 포함하는 일반적인 사람을 뜻한다(창5:2). 구약에서 아담은 사람이라 뜻으로 약 460회 쓰였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참조하셨다(27절).

아담의 다른 뜻: 1. 붉은, 에서의 붉은 팥죽, 여기서 에돔이 나옴, 붉은 암송아지, 숫양의 가죽

창1:28 창조물을 다스릴 권한을 위임함

A. Replenish the earth(땅을 채우다).

replenish (ed) - (7x) – simply defined this word means to keep something at the same level as it was received. The “re” beginning this word does not mean “again” as in most words with the “re” prefix. It’s root is from the Middle English replenisshen, [note the spelling] which is the same as the Middle French repleniss-, from the stem of replenir, which means to fill; to fill with persons or animals; to stock. It is not from the Latin word which is a combination of the prefix “re” and “plenus.” [note spelling].

렘31:25: replenish와 satiate의 대조,

겔26:2, replenish와 laid waste의 대조,

창1:28은 ‘흡족히 채우는 것’이다.

OED: 타동사로 ‘다시 채우다’의 의미는 없다.

성경 내장 사전: 창1:22의 채우고(fill) 1:28의 채우고(replenish)는 같은 원어이다(말례, 스트롱 4390)

B. 문화 위임: 문화와 충돌하는 것이 아니다(대부분 교회의 선교관, 록 음악, 워십 댄스, 릭 웨렌 스타일 교회관 수용), 교회를 문화 공간으로, 교회가 세상 문화를 선도한다 등등.

창1:29-30 사람과 짐승은 모두 초식을 했다.

육식은 창9:3 이후부터, 천년왕국에는 다시 초식으로 돌아간다(사11:6-9).

A. 만물이 신음하고 있다(롬8:8:19-22). 만물의 회복(행3:19-21), regeneration(마19:28).

B. meat: 먹을 것(고기를 포함함)

창1:31 보기애 매우 좋았다(여섯째 날).

창세기 강해 제11과

창2:1 모든 군대(hosts), 하늘들의 군대(사45:12), 주의 군대(수5:13-15), 만군의 주(삼하6:2; 시24:10), 하늘의 군대(눅2:13), 만군의 주(롬9:29; 약5:4)

하늘의 군대인 천사들과 일월성신 군대(천체들)과 땅의 군대들과 심지어 메뚜기, 까마귀, 메추라기, 자별레 같은 괴초물 군대도 모두 포함한다. 구약 LORD of hosts(245회, 삼상1:3 처음 나옴), 신약 Lord of sabaoth(2회, 룸9:29; 약5:4)

창2:2-3 안식일(일곱째 날), 창세기의 안식일 제도는 결혼 제도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것이다.

- A. 하나님께 경배한 사람들은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킨 것으로 보이며 시내 산에서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이러한 흔적이 있음을 보여 주는 기록이 있다(창8:10, 12).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기록은 이미 그 당시에 안식일이 알려져서 준수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출16:22-30). 메소포타미아와 아라비아에서는 이례(주)가 시간 구분의 단위였다(창29:27).
- B.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것은 1차적으로 모세 율법의 표적으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다(출31:13; 갤20:12, 19-21). 그러므로 교리적으로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만 속한 것이며 이방인들(세상)과 교회(그리스도인)와는 상관이 없다.
- C. 유대 민족을 제외한 다른 민족이나 백성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책망을 받은 적이 없다. 유대인들의 규례인 안식일은 결코 일주일 중의 다른 날로 바뀐 적이 없으며 다른 민족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그런 날이 된 적도 없다(사58:13-14). 안식일은 호2:11에서 예언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민족적으로 그들의 땅으로 되돌아 갈 때 다시 회복될 것이다(사66:23; 갤44:24, 46:1-3).
- D. 구약시대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은 안식일에 성전으로 들어가고 전 주에 일하던 사람들은 나왔다. 그들은 새로 만든 ‘보여 주는 빵’을 진열하고 묵은 빵을 치웠으며(레24:8) 두 마리 어린양을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과 함께 드렸다(민28:9-10).
- E. 율법은 안식일을 거룩히 구분하라고 명령하며(출20:8; 신5:12) 유대인들은 사랑의 행위와 기도와 찬양과 감사 등으로 그것을 거룩히 구분하고 사적/공적 예배를 통해 또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마음을 평온하게 하며 율법을 묵상하는 것을 통해 그 날을 다른 날과 구분하였다. 또한 율법은 그 날 일을 하지 말고 쉴 것을 명령하였으며 그래서 그 날에는 몸과 정신의 건강을 위해 다른 날 하던 모든 것을 옆으로 치우고 오직 종교적인 목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하는 일에만 신경을 썼다. 그 날은 다른 날과 구분된 날이므로 안식일의 정신을 따라 세상의 오락을 위해 그 날을 사용하는 것을 금해야 하기 때문이었다.

창세기 강해 제12과

F. 교리적으로는 안식일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례에 하루를 쉴 것을 명령하신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위한 것이었다(막2:23-28). 물론 안식일 법규에 부가적으로 추가된 규정들은 모세의 사회 법의 일부가 되었으며 이것들은 현재의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 안식일에 일하면 죽이는 것(출31:14-15; 민15:32-36).

G. 주일, 일요일은 결코 율법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아니다.

a) 구약 안식일의 영적 적용(실제적인 휴식을 위해)

b)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c) 이 날 즉 주의 첫 날에 그분께서는 모여 있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요20:19). 초대 교회의 제자들은 주의 첫 날에 모여서 경배하고 주의 만찬을 기념했다(행20:7-11; 고전11:20; 고전16:1-2)

d) 요한은 아주 엄숙하게 이 날을 지켰으며 그 날을 ‘주의 날’ 즉 주일이라고 불렀다(계1:10). 요한의 계시록 이후부터 이 날은 주일이라고 불렸다.

e) 복음 선포의 초기에 유대인 제자들은 유대인들의 안식일도 지켰지만 결코 유대인들의 안식일이나 명절을 이방인이 지켜야 한다고 요구하지 않았다(행15:28-29; 골2:16). 초기 기독교의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주일을 경배 드리는 날로 따로 떼어 지켰다.

d) 한국에서는 주일을 유대인들의 안식일로 여기는 경향이 짙다.

H. 신약시대의 안식일 요약(막2:23-28)

I. 유대인들은 7년마다 안식년을 지켰으며 이때에 온 땅은 경작되지 않고 안식하였다(출23:10-11; 레25:1-7). 하나님은 유대인들이 온 세상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 또 자신이 모든 것 특히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신 가나안 땅을 주관하는 것을 보여 주시기 위해 안식년을 제정하셨다. 또 그분께서는 안식년에 땅에서 저절로 자란 과일이나 곡식을 가난한 자들과 종들에게 그냥 주라고 명령하심으로써 인정을 베풀게 하셨다.

a) 이스라엘의 70년 포로 생활(BC 606-536)의 원인: 렘25:11-12; 대하36:21; 스1:1; 단9:2).

J. 희년(Jubilee) 50년마다 치르는 히브리 사람들의 명절. 이것은 7년이 일곱 번 지난 뒤에 왔다(레25:8-17). 안식년 다음 해의 희년도 안식년, ‘주빌리’라는 말은 ‘소리 나다’ 혹은 ‘호르다’를 뜻하며 희년이 다가옴을 알리는 나팔소리(양 뿐 나팔)를 가리켰다. 희년에는 아무도 씨를 뿌리거나 거두지 않았으며 땅이 저절로 내는 것들로 채워졌다.

a) 개인의 자유 회복: 모든 사람은 자신의 상속물을 되찾았고 히브리 사람으로 종이 된 사람들은 아내와 아이들과 함께 자유를 얻었다(레25:1-55). 7월 10일(레25:9)은 속죄일이고 산헤드린은 이때에 나팔을 불게 하였으며 종들은 곧바로 자유를 얻고 땅은 본 주인에게 돌아갔다(13, 47-55). 이것은 궁휼의 법이었고 이로 인하여 히브리 사람들 간에는 어느 정도 평등이 유지되었고 땅은 원래의 지파에 따라 영원히 구분되어 나뉘었으며 모든 사람의 계보를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를 통하여 주님이 모든 것을 배분해 주는 분이며 자기들은 청지기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레25:23).

b) 재산의 회복(25:15)

c) 단순한 생활(25:19-21; 신8:3; 마4:4)

d) 지금 이 시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신정정치 하에서만 가능함).

창2:2-3 ‘그 저녁과 아침이 일곱째 날이더라’가 없음(벧후3:8; 계20:1-10, 21:1).

창세기 강해 제13과

A. 안식교(Seventh Day Adventist Church, 제칠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1. 역사

a. 윌리암 밀러(William Miller), 1782년 매사추세츠 주 피츠필드에서 출생, 회의론자였으나 1816년 개종함. 침례교 목사

1) 2년 동안 열심히 성경을 연구한 뒤 다음과 같은 시한부 종말론의 결론을 내림: “1818년에서 25년이 지난 1843년에 세상의 종말이 온다.”

2) 그 뒤 4년여를 더 공부한 뒤 공식적으로 자신의 견해를 발표하자 많은 추종자들이 그를 따름.
밀러의 날짜 계산 방법:

1) 다니엘서 9:24-27을 인용함

2) 예루살렘을 재건하라는 명령을 받은 날(BC 457년)로부터 성소가 정결하게 되기 전에 2,300일이 지나야 함(단8:14).

3) 성소가 정결케 됨=예수님의 재림, 하루=1년, 그러므로 BC 457부터 2300년이 지나면 1843년이 됨.

4) 그러나 밀러파 추종자들의 실망 속에 1843년이 지나감. 그들은 이 사건을 ‘대실망’이라 부름.

5. 그 이후 많은 이들이 밀러파를 떠났지만 여전히 다수는 재림을 기다림.

b. 히람 에드슨(Hiram Edson)

1) 역시 밀러 추종자중의 한 사람,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에 대한 이상을 봄

2) “주님께서 천상의 성소에서 나오셔서 2300년이 되는 해인 1843년에 오시는 대신 천상의 성소 안에 있는 둘째 방(지성소)에 들어가심. 그분께는 재림 전에 할 일이 남아 있음”

3) 구약시대의 제사장들: 매일 매일의 사역이 있고 일 년에 단 한차례 대 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성소를 정결케 함

매일 사역: 수세기의 기독교 시대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매일 사역을 해 오심. 그 결과 죄는 용서받았으나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은 아님.

연중 사역: 1844년 10월부터 죄를 없애 주는 사역이 시작됨. 이 일이 끝나야 예수님께서 지상 재림하심

여기에서 안식교의 ‘조사심판 교리’라는 것이 나옴.

c. 조셉 베이츠(Joseph Bates)

1) 크리스천이 지켜야 할 날이 안식일이라는 교리를 확립, 안식일 준수=구원의 조건

2)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이 바로 계시록의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고 규정

3) 계시록 7장에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봉인하는 대목이 있는데 그 봉인이 바로 안식일임

4) 봉인 받은 자의 수효가 144,000명이며 바로 이들이 안식교인임.

d. 엘렌 화이트(Ellen G. White)

1) 예수 재림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인물, 1827년 감리교 가정에서 탄생

2) 평생토록 병으로 고생했고 어려서는 마비 현상이 자주 나타났음

3) 1840년, 1842년 윌리엄 밀러의 강연을 들은 뒤 그녀의 가족은 모두 밀러주의자가 됨

4) ‘대실망’ 사건 이후 여러 차례 환상을 봄, 23년간의 사역 기간에 100-200번의 ‘펼쳐진 계시’를 봄

5) 안식일 교도들의 신앙과 활동이 그녀의 환상이나 가르침 등에 의해서 고무됨.

6) 1845년 2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로 들어가는 환상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조사 심판 교리가 확증됨

7) 1847년 4월: 지성소의 언약궤와 그 안의 십계명을 보았는데 제4계명 즉 안식일 계명에 승리의 광채가 나는 것을 봄, 이 환상을 통해 안식일 성수 교리가 확증됨

2. 현황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3백만의 신도들이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삼육 재단, 이상구 박사 등이 안식교와 관련되어 있음

3. 재림 안식일 교회의 이단 교리 요약

- a. 영혼 불멸을 부인(부활신앙)
- b.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조사심판)
- c. 주일과 안식일의 문제(율법주의)
- d. 이 외에도 십일조에 의한 구원, 고기, 커피 등을 금하는 것 등이 있음

4 오류 반박

1) 부활 신앙의 오류

안식교 교리: 영혼 수면 및 멀절

“죽었을 때의 인간 상태는 무의식 상태이다. 선인이든 악인이든 모든 사람이 죽은 뒤 부활할 때까지는 무의식 속에서 즉 혼이 자는 가운데 무덤 속에서 머문다.”

“둘째 부활 시에 부활하는 악인들은 영원히 지옥에서 형벌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소멸된다”

반론 : 뉴16:22-31, 계6:9-11, 마25:46,

계14:9-11, 계20:10

2)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조사심판)

예수님의 속죄는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는가? 아니면 아직도 진행 중인가?

“오늘날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위대한 제사장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하시는 동안 우리는 완전해지려고 노력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피는 회개하는 죄인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풀려나게 하는 것이기는 해도 죄를 말소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분께서는 현재 조사 심판을 하고 있으며 그 혜택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위해 속죄하고 계신다.”(엘렌 G. 화이트)

그들은 죄의 소멸 작업 혹은 진정한 속죄가 1844년 10월 예수님께서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셨을 때 시작되었다고 주장함. 즉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속죄를 마련하는 희생을 드렸으며 승천 후에는 이 헌신을 적용한다고 가르침.

현재 예수님께서는 창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을 ‘조사 심판’하여 믿는 자 중에서도 ‘합격’, ‘불합격’을 가지고 있는 중임.

그들은 ‘죄들의 사면 혹은 용서’와 ‘죄의 말소’ 사이에 구분을 둠.

즉 사람이 회개하면 죄는 용서받지만 죄가 말소되는 것은 아니라고 가르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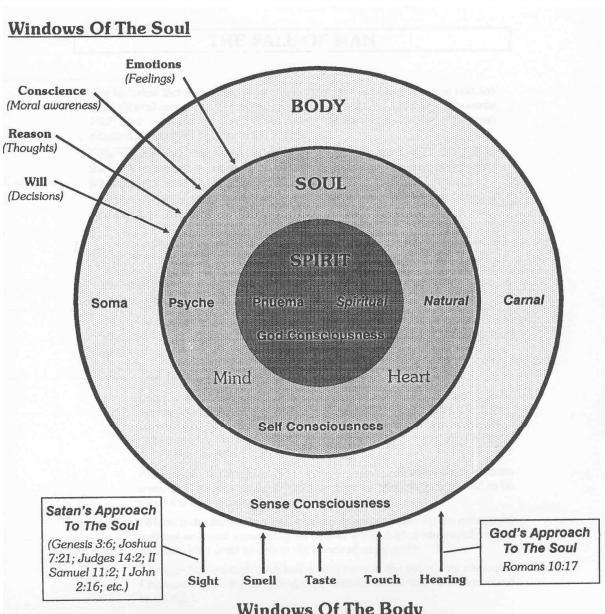
그리고 실제적인 죄의 말소는 구원받은 뒤의 행위와 태도에 의해 결정됨.

여기서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함.

‘믿음 더하기 행위’에 의한 구원; 반박 성경 구절: 엡2:8,9; 디3:5; 히9:12; 28; 10:18

3) 안식일 준수

- a. 안식일은 유대인들의 표적(느9:14; 갤20:12, 20), 주전 1500년경에 안식일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주어짐, 아무도 그것을 명령으로 지키지 않음.
- b. 아담, 아벨,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창세기 인물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음.
- c. 아담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창2:15-17)은 안식일을 포함하지 않음.



- d. 아담은 창3:19-20 전에는 일을 하지 않음.
 - e. 율법의 하나라도 어기면 죽어야 함(약2:10).
 - f. 구약의 율법 명령들은 이제 폐기되었고(고후3) 크리스천들은 이제 율법 하에 있지 않음(롬6:14).
 - g. 실제로 유대인들 외에는 안식일을 바르게 지킬 수 없음(거리 문제).
 - h. 그리스도인들은 주일에 모였음(150년경에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거의 확정됨).
 - i. 출12:16, 거룩한 집회가 첫째 날에 있었음.
 - j. 예수님도 안식일을 어겼음(요5:18).
- 4) 육식, 커피 등 금지(불필요)

B. 히브리서의 안식, 히브리서는 수신 대상이 유대인 크리스천이므로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이집트 탈출과 가나안 입성에 관한 안식을 다루고 있다. 히3:18, 4:1, 4:10의 ‘하나님 자신의 안식’은 구원을 상징하는 이집트 탈출(출애굽) 이후의 가나안 입성과 관련된 안식이고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누릴 천년왕국의 안식을 가리킨다고 볼 수 있다. 이 안식은 구원받은 자가 누릴 안식으로 특별히 환난기에 들어간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경우 힘써서 들어가야 하는 안식이고(마24:13; 히4:11) 성도들의 경우 선한 행위와 수고를 통해 얻는 안식이다. 반면에 히4:2-6의 안식은 창조의 안식이며 동시에 구원받아 영혼의 자유를 얻는 안식이고 이것은 복음이 믿음과 결합될 때 사람의 행위와 상관없이 얻는 안식이다 (히4:2).

창세기 강해 제14과

창2:4-5 generations(생성 세대들), 히브리어 ‘틀레다’(OT:8435), 창2:4; 6:9; 10:1; 11:10; 11:27; 25:12; 25:19; 36:1; 36:9; 37:2(10회), 이 경우는 의인화

여기에 처음으로 여호와(LORD)가 등장함. 여호와 엘로힘(주 하나님)은 모세오경에서 2장과 3장 그리고 출9:30에만 기록되어 있다.

A. 위엄 있는 이름: 출20:7의 명령(신18:15-22; 왕상22:5-7; 렘26:16), 반드시 주로 번역해야 한다(전 세계 모든 성경이 그렇게 번역했다). 개역성경과 ASV와 여호와의 증인들의 성경만 여호와로 함.

Jehovah=LORD, Adonai=Lord

흠정역: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서 내 주(Lord, 그리스어 큐리오스)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마22:44)

흠정역: 주(LORD, 히브리어 여호와)께서 내 주(Lord, 히브리어 아도나이)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을 네 발받침으로 삼을 때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시110:1).

주의 날: 행2:20과 율2:31, 롬10:13과 유클리드 32

B. 여호와: 구약에 6823회 나옴(창2:4부터, 여호와(주) 엘로힘(하나님))

어원: 히브리 동사 havah: “to be” or “being” 이것은 또한 히브리 동사 chavah: “to live” or “life” 스스로 존재하는 분, 영원한 생명의 근원(사43:10-11)

C. 여호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이름

히브리 사람들: 1) 거짓 신, 참 하나님(엘로힘), 참 여호와(No), 2) 내 하나님, 내 여호와(No), 3)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여호와(No)

D. 한 하나님(신6:3-4)

E.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니라. I AM THAT I AM(출3:14, 15; 요8:58). 계시하는 하나님 출6:3(창2:4부터 여호와)

1. 이름의 의미를 알려주지 않음. 2.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계시된 이름

노아의 아들들: 그분은 함과 야벳, 셈의 자손 모두에게 엘로힘. 그런데 셈의 자손(아브라함)의 엘로힘은 여호와이다(대하14:11; 시86:10).

F. 이스라엘의 하나님

창2:6 처음 상태, 안개만 올라옴. 지금과 같이 바닷물이 증발하고 비가 오는 시스템이 아님(전1:6-7; 사55:10-11), 아마도 궁창 위의 물(증기막)의 영향. 지금과는 다른 상태였다.

창2:7 땅의 흙(dust of the ground), 먼지(고전15:47)

흙을 구성하는 원소는 86종에 이른다. 인체를 구성하는 원소는 일반적으로 25종이다. 이것들은 생명 현상을 유지하는 필수 원소이고 여기에 미량 원소가 대략 22종이 더 있다고 한다. 즉, 인체를 구성하는 전체 원소는 47종에 달한다는 것이다.

흙으로 만든 이유: 1. 스스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도록, 3. 하나님의 숨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

생명의 숨: 생명은 생명에서만 나온다. 짐승도 생명의 숨이 있다(창7:22). 아담이 살아 있는 혼이 됨(고전15:45). 사람은 살아 있는 영이 아니다. 사람은 혼이다. Mature creation

창2:8 동쪽으로 에덴에 동산을 만들었다. 에덴: 기쁨, 행복, 에덴의 위치: 지금의 중동, 석유

창세기 강해 제15과

창2:9 생명나무(창3:22; 계2:7; 22:2, 14), 생명나무(잠3:18; 11:30; 13:12; 15:4)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지식의 나무가 아님, 창3:6), 무죄 상태(순진무구함), 양심이 작동하지 않음.

창2:10-14 헛데겔(티그리스), 지금의 지형과 다름(벧후3:6), 하월라(구스의 자손, 창10:7, 29), 밭 전(田)

창2:15 남자의 임무: 에덴동산을 돌보는 것, 사람은 처음부터 일을 하도록 창조되었다.

창2:16-17 하나님의 명령과 사람의 의무, 선악과를 먹지 말라. 스스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지 말라. 상대적인 윤리가 아니라 절대적인 윤리

하나님의 명령은 매우 명료하다. 첫 아담과 둘째 아담(눅4:1-13) 모두 그분께서 말씀하신 것을 근거로 시험을 받았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세 가지 태도: 1. 부족하니 더해라(창3:2-4), 2. 어려운 것이 많으니 빼라(창3:2-4), 3. 문자 그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보라(창3:2-4), 지옥과 연옥 등을 영해한다.

죽음: 분리되는 것, 몸의 죽음: 영과 혼이 몸에서 분리되는 것(창35:18), 사람이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것, 둘째 사망(계20:14-15; 유12), 교제가 되지 않는 것(엡2:1)

사망은 아담의 범죄로 인해 부가된 형벌이다(창2:17; 3:19). 부활 때에 마지막으로 정복되어 발밑에 깔릴 원수는 사망이다(롬5:12-21; 고전15:1-58). 육체적으로 죽는 것은 ‘숨을 내어 주다’(우리말 성경은 ‘숨을 거두다’로 되어 있음)로 표현되거나(시104:29) ‘땅으로 돌아가는 것’(창3:19; 전12:7), ‘혼이 몸을 떠나는 것’ 혹은 ‘입는 것’(고후5:3-4) 또는 ‘몸이 거하던 장막을 떠나는 것’(고후5:1; 벧후1:13-14) 등으로 표현되었다. 신자들의 죽음은 ‘떠나서 집으로 가는 것’ 혹은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것’(빌1:23; 마26:24; 요11:11; 살전4:13) 등으로 표현된다.

창2:18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합당한 조력자(helpmeet), 잠18:22; 19:14
도움이 아닌 것(잠21:9, 19)

조력자: 주역이 아니라 돋는 자(고전11:3, 8, 9) 잠31:10-31

남편과 아내의 문제: 고전7:1-7

창2:19-20 1장에서는 제5일에 날짐승(물에서), 6일에 짐승, 여기와 모순(?), 에덴동산에서의 일 짐승을 다스리도록, 조력자의 필요성을 보도록, 이름(고도의 지성인), 타락 이후로 지성이 감소함 이종 교배(사람과 짐승)는 No.

창2:21-24

잠: 많은 경우 죽음을 뜻한다(요11:11; 살전4:14; 고전15:51 등).

이브는 죽음의 결과이다(요19:34).

딤전2:13, 고전11:8, 모든 남자는 여자에게서, 다만 이브는 남자에게서

사람을 만드는 방법: 흙, 남자의 갈비뼈에서, 남자와 여자, 천사와 여자(창6), 성령님과 여자, 인간 복제, 여기의 갈비뼈(rib)는 다른 데서 대개 side 즉 옆구리로 번역되었음(출25:12).

다른 데서 갈비뼈로 번역된 단어는 이것과 다름(삼하2:23; 3:27; 4:6; 20:10)

여자는 머리도 아니고 발도 아니고 옆구리에서 나옴.

이브도 몸과 생명과 영을 가졌는데 영은 하나님에게서 나왔다(창1:27; 습12:1).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은 남자와 여자에게 주어졌다. Woman: Womb man

창세기 강해 제15과

결혼 제도: 마19:1-9, 처음부터 일부일처제도, 그러나 사람은 일부다처제도 같은 이상한 것들을 만든다(전7:29). 말2:14-16, 마19:8

아브라함, 야곱 다윗 등의 나쁜 예, 심지어 이혼하게 함(스10:11). 마19:8
땅의 모든 결혼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야 한다.

one flesh: 둘이나 하나이다. 모두 결혼하는 것이 좋음(고전7:8-9; 딤전5:11, 14)

헤어지는 경우: 사망(롬7:1-3), 간음(신22:22-24; 요8:3-7)

독신과 별거와 이혼(고전7:1-17), 고전7:7(마19:11-12; 고전7:26),

고전7:10-11: 남녀 모두 크리스천의 경우

고전7:12 이하: 신자와 불신자

고전7:14(딤전4:5, 행16:1; 딤후1:5), 결혼의 합법성을 말한다. 고전7:15, 뒷부분이 중요함

내 뼈 중의 뼈요, 살 중의 살(골육 창29:14; 삿9:2)

그리스도와 교회(엡5:22-33)

창2:25 무죄 상태, 아무도 없었음, 별거벗음(레18:6-19; 20:11-21)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 처음에 만드신 제도: 결혼, 안식일

창3:1 뱀(고후11:3; 계12:3-4, 9; 20:2), 뱀은 사탄의 이름이다. 간교하게 여자에게 유혹의 질문을 함

창3:2-3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말씀을 바꿈

창3:4-5 뱀이 하나님의 말씀을 뒤집음

New Age 믿음: 눈이 열림(신비주의), 신들과 같이 됨(죽지 않음, 윤회), 선악을 맑(상대주의)

● 마귀(마13:19; 39; 살전3:5; 요8:44; 앱2:2; 살후2:9-10)

사탄: 대적하는 자(왕상11:14; 시109:6). 예수님은 베드로를 이런 의미로 꾸짖으셨다(마16:23).

사탄은 사람의 혼의 가장 큰 대적자 즉 마귀, 타락한 천사들의 통치자,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고소하는 자를 가리킨다(욥1:7, 12; 속3:1-2; 계12:10).

그는 사람들을 유인하여 죄를 짓게 하고(대상21:1; 뉘22:31) 따라서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육신적 도덕적 죄의 창시자이며 특히 각종 재난 특히 죽음까지도 가져오는 악한 성향을 만드는 장본인이다(눅13:16; 히2:14).

그는 방해 요소들을 사용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과 삶을 개혁하려는 것을 크게 저지하고 있다(마4:10; 앱2:2).

사탄은 단순한 악의 원리가 아니라 한 인격체이다(벧전5:8).

타락하기 전 사탄은 기름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

그의 이름은 루시퍼(Lucifer, 빛을 낸다)였다. 이사야서 14장은 성경에 기록된 ‘루시퍼에 대한 유일한 일대기’로서 이곳이야말로 성경에서 유일하게 ‘불법의 신비’(살후2:7)에 대한 단서를 제공한다.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는 루시퍼의 자만에 찬 외침 속에는 그의 불만이 무겁게 깔려 있다(사14:12-17). 12절에서 루시퍼는 하늘에 있고 15절에서는 지옥에 있다. 이렇게 하늘에서 지옥으로 가는 동안 그는 무려 다섯 번이나 “내가 무엇을 하리라.”고 외치면서 하나님 같이 되려는 욕망을 표출하고 있다. 루시퍼는 스스로 자신의 신분을 변경하기를 원하고 모든 창조물이 자기에게 경배 드리기를 갈망했으며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마저도 자기에게 경배하기를 바랐다(마4:9). 마귀의 일대기는 에스겔서 28장에도 기록되어 있으며 거기에서 그는 ‘기름 부음 받은 그룹’이라고 언급되어 있다(겔28:14).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루시퍼란 이름을 제거하고 대신 예수님의 호칭인 새벽별(벧후1:19; 계22:16)을 넣었다.

그는 하나님의 왕좌의 근위병(그룹)이었으며 창조된 날로부터 불법이 그 안에 발견되기까지 모든

길에서 완전했다. 비록 그에게 지혜의 충만함과 완전한 아름다움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은 그의 마음속에 창조주와 같게 되려는 교만을 일으켰고 결국 그의 타락으로 이어졌다(사14:12-20; 딤전3:6). 그는 가장 귀하고 보배로운 보석들로 덮여 있었고 금으로 짠 옷을 입었으며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거주했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에 살았다(겔28:11-19).

현재 사탄과 그의 천사들은 자유로운 상태에 있다(욥1:7; 2:2; 벤전5:8).

사탄은 왕으로서 왕국을 가지고 있다(마12:26). 사탄의 왕국은 정사들, 권능들,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 그리고 높은 곳들에 있는 사악한 영들로 구성되어 있다(엡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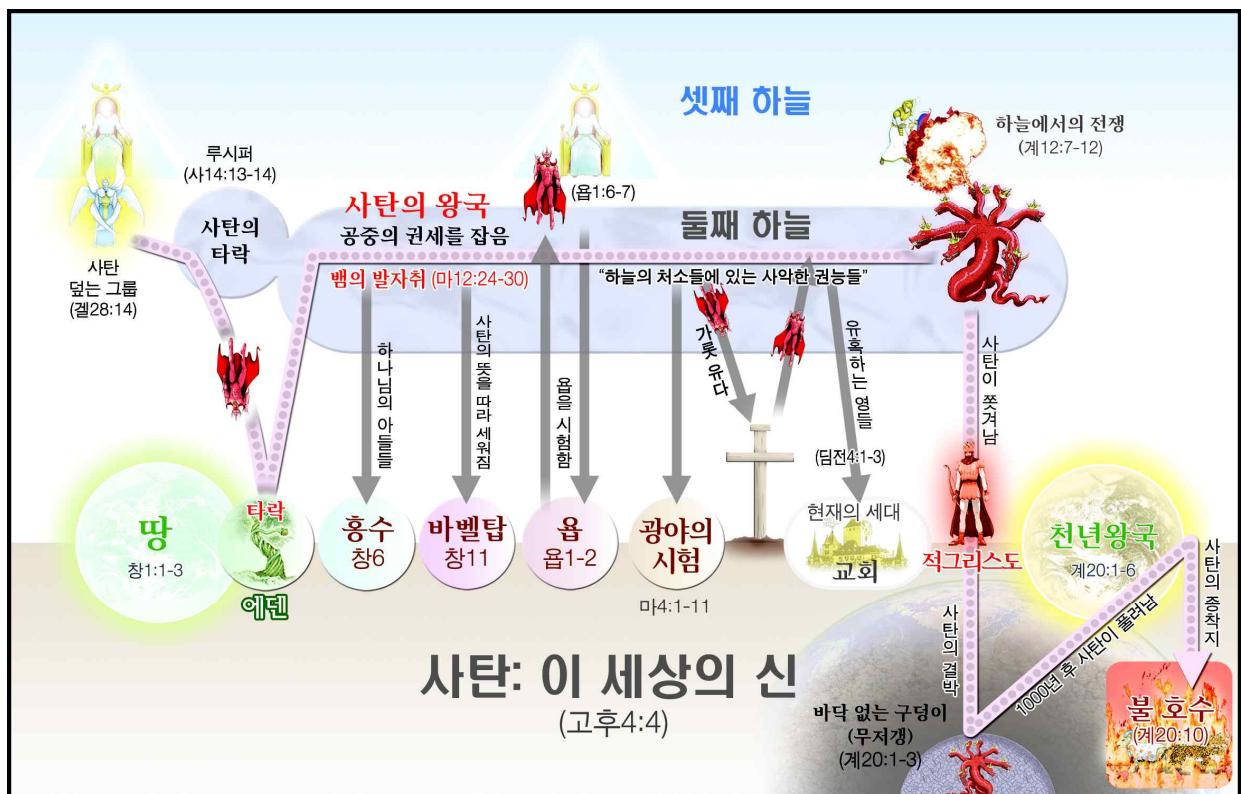
그는 세상을 속이는 존재이다(요일5:19). 사탄은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눈을 가림으로써 그들을 속이고 있다(고후4:3-4).

말세에 사탄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설교자들을 관장하는데(갈1:6-9) 이 복음은 마귀들의 교리이다(딤전4:1). 그는 엄청난 배도의 선동자이며 베드로는 마지막 때에 도처에서 일어날 거짓 교사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한다(벧후2:1-2). 그들은 ‘예수님의 처녀 탄생’, ‘그리스도의 신성’, ‘몸의 부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전천년 재림’을 부인한다.

사탄은 폭력과 박해로는 교회를 파멸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전술을 바꾸어서 지금은 교회가 세상과 연합하도록 미혹하고 있으며 하나님께서 멸하시려고 작정하신 이 세상을 좀 더 발전시키려 하고 있다. 현재 그가 추구하는 것은 응대한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며 교회를 미혹에 빠뜨려 사회의 개선을 통해 그리스도 없는 천년왕국의 도래를 믿도록 하는 것이다.

사탄이 하늘에 속한 곳에서 쫓겨나 땅에 거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계12:9-12). 그리고 그 이후에 사탄은 자신의 때가 단지 3년 반밖에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이다. 그의 분노로 인해 지구에는 엄청난 공포가 있을 것이며 이때에 그는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일을 하게 될 것이다(계13:2-8).

7년 환난 기간의 종말에 이르러서 그의 짐승과 거짓 대언자는 산채로 불 호수에 던져질 것이며 하늘로부터 내려온 한 천사가 사탄을 사로잡아 이미 만들어진 거대한 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끝없이 깊은 구덩이 속에 던져 버릴 것이다(계20:1-3). 1000년이 찰 때에 사탄은 잠시 풀려나지만 곧 그의 천사들과 함께 그를 위해 오래 전에 예비된 불 호수에 영원토록 던져질 것이다(계20:7-10; 마25:41).



창세기 강해 제17과

창3:6 먹기에 좋고 보기에도 아름답고 사람을 지혜롭게 만듦(요일2:15, 16,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인생의 자랑, 마4:1-10)

이브는 봉황한 상태에서 속았으나 아담은 알면서 죄를 지음(딤전2:11-15).

창3:7 그들의 눈이 열림(선악을 알게 됨), 별거벗은 것을 알게 됨(창2:25; 출32:25; 대하28:19; 갤16:36) 사람의 상태(욥1:21), 앞치마를 만듦(가인의 종교, 사64:6, 롬10:1-10, 롬4:1-10).

● 죄(Sin)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거나 그것과 비교하여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는 생각, 말, 욕망, 행동. 성경에서 죄는 불법, 범죄, 허물, 빛, 불순종, 반역, 거역, 실족, 완고, 무지, 위선 등으로 표현됨. 원어에서는 죄가 ‘과녁을 벗어난 것’으로 표현됨.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롬3:23), 과녁=하나님의 영광 세상의 종교: 선행을 통해 죄를 덮거나 죄 값을 낮추려 함

구원의 도리가 다름

죄의 오염, 본성, 형태, 효과 등(창6:5; 시51:5; 마15:19; 롬5:12; 약1:14-15 등)

성경은 죄를 가리켜 육 혹은 육신, 죄와 사망의 법 등이라 한다(롬8:1-2; 요일3:4; 5:17).

죄의 형별은 사망이며 하나님은 분명히 아담이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창2:17).

죄의 해결책(고후5:21)

● 죄인(Sinner) 사람은 본질적으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이다.

그가 죄를 짓는 것은 열매이지 근본 뿌리가 아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 심지어 갓 태어난 아기들조차도 -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다(롬5:12-14; 시51:5; 롬15:14; 25:4-6).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없으며 이로 인해 사망이라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창2:17; 롬6:23).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에 원하시는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행4:12).

병자가 자신이 병든 것을 알지 못하면 의원에게 올 수 없듯이 죄인도 마찬가지다.

● 아담의 상태 정리: 죽었다, 무엇이 죽었는가?(엡2:1-10), 우리는 모두 아담 안에서 죽었다(고전15:22). 뉘9:60의 뜻, 영이 죽었다. born again의 필요성(요3:7), 그 결과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난다(창5:3).

죽음 요약: 영적으로 죽은 것, 육체적으로 죽는 것, 영원히 둘째 사망으로 인해 죽는 것

창3:8 죄를 지으면 숨게 마련이다. 하나님 앞에서 숨는 것은 소용없다(시139:1-12).

창3:9-10 갤34:11-16, 롬3:11, 뉘15:4-6; 뉘19:10과 대조,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신다.

네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질문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아담의 정직한 대답

창3:11-12 하나님을 비난함, 다윗과 정반대(시51:1-12)

창3:13 네가 한 일이 도대체 무엇이냐?

창3:14-15 뱀에 대한 저주는 천년왕국에서도 나타남(사65:25). 이때에 창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음(롬8:20-22)

창세기 강해 제1급과

창3:14-15 뱀에 대한 저주는 천년왕국에서도 나타남(사65:25). 이때에 창조물 전체가 저주를 받음(롬 8:20)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her seed, 여자의 씨)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KJV).

I will put enmities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thy seed and her seed: she(마리아) shall crush thy head, and thou shalt lie in wait for her heel(Douay-Rheims)

적개심(enmity)

1. 여자와 뱀은 불화하다.
2. 여자는 씨를 갖는다. her seed=it(눅1:35), 여자가 씨를 갖는다. 처녀 탄생(갈4:4)
3. 뱀도 씨를 갖는데 이 씨가 여자의 씨를 대적한다. 악한 자들(마3:7; 12:34), 적그리스도(계13:14)
4. 뱀은 여자의 씨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요16:11; 골2:14-15), 아킬레스의 건
5. 여자의 씨는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롬16:20). 카톨릭 두에-랭스 성경은 '네 씨'를 마리아로 대체함.

창3:16 여자 먼저(엡5:22, 25; 벤전3:1-5; 딤전2:14), 너의 열망...(너는 네 남편이 너를 다스려 주기를 원할 것이다). 고전11:9

창3:17-19 남자에 대한 저주, 땀을 흘려야 한다(살후3:10-12)

창3:20-21 창2:23에서 여자였음. 이브(히브리말 하와, 생명을 주는, life giving)로 바뀜.

가죽 옷(coats of skin), 아마 양가죽이었을 것이다(창4:4; 22:8; 출12).

어린양(요1:29; 출12; 사53:1-8; 계6; 계5:12; 13:8; 19:7)

창3:22-23 생명나무(계2:8; 22:14)

창3:24 그룹: '굳게 붙잡다'라는 의미, 구약성경에 나오는 천상의 존재. 이것은 천사가 아니라 천상의 존재이며 복수는 'Cherubim'이다. 그룹은 살아 있는 창조물로 표현되었으며(겔1:1-28) 그룹의 형상은 성막과 성전의 직물이나 커튼 등에 수놓아졌다(출36:35; 겸41:25). 그룹은 네 개의 얼굴과 네 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겔1:6; 10:14). 가장 단순한 형태의 그룹은 언약궤 위에 묘사되어 있고, 보다 정교하고 복잡한 형태는 에스겔의 황상 속에 묘사되어 있다(겔1:1-28; 10:1-22). 후자를 보면 그룹은 날개를 가졌고 온 몸에 눈이 있으며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가지고 있고 사방으로 가는 바퀴를 가지고 있으며 번개같이 빨리 움직인다. 그래서 이것들을 종합해 보면 그룹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고 권능이 넘치는 존재로서 창조물의 극치라 할 수 있다. 그룹들은 하나님의 왕좌 근처에서 그분을 찬양하고 섬기는 일을 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신속하게 움직인다(시18:10; 겸1:26; 10:20). 그래서 성전에서 그룹들은 정금으로 만들어지고 궁흘의 자리 위에 올려져서(출25:19) 근엄하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내려다보았다(시99:1).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곳에서 자신의 백성을 만나는 분으로(민7:89) 또 피의 속죄를 받아 주시는 분으로 표현되었다(레16:15-16). 사탄은 한때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었다(겔28:14).

로마서 5장: 아담과 그리스도

1. 청의: 천국 보장, 현세의 기쁨

2. 청의: 영원하다

롬5:1 ① 하나님과의 화평

롬5:2 ② 하나님께 다가감(access), ③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롬5:3-4 ④ 그리스도인의 인격, 체험: 인격 입증

롬5:5-8 ⑤ 하나님의 사랑

롬5:9-10 ⑥ 진노에서 구원받음

롬5:11 ⑦ 속죄(at-one-ment), 화해하게 됨(엡2:11-18)

청의의 일곱 가지 효과: "그리스도께서 죽었고, 살아 계시고, 다시 오심에 근거한다."

청의의 근거(롬5:12-21):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청의가 이루어지는가?

창세기의 죄의 효과보다 더 큰 그리스도의 사역/효과를 설명하려 함

A. 질문: 하나님이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모든 인류를 정죄하는 것이 정당한가?

대답: 정당할 뿐만 아니라 그것은 지혜롭고 은혜로운 것이다.

모든 사람을 개인별로 시험해도 결과는 같다(불순종).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정죄함으로 한 사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연합되어 있다(예: 히7:9-10).

타락한 천사들: 구원받지 못한다(사람이 아니므로). 개인적으로 정죄를 받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인류의 머리인 아담 안에서 죽게 되었으므로 새로운 창조 세상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B. 질문: 우리가 모두 아담과 연합되어 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대답: 루5:12-14, 모든 사람이 죽는다. 율법을 범하면 죽는다. 아담부터 모세까지는 율법이 없었다.

그래도 사람들이 죽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담의 불순종이다. 창세기 5장은 아담의 범죄 이후 사람이 죽는 것을 보여 주는 증거이다.

루5:12 모든 사람이 아담의 죄 안에서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두에게 임한다. Gap 이론 불가능
사람들은 자기의 죄로 인해 육체적으로 죽지 않는다. 아이들은 죄가 없으므로 죽지 않아야 한다(롬 9:11). 죽음 문제 의논(육체의 죽음, 영적으로 죽음, 영원한 죽음(둘째 사망))

결론: 사람들은 아담 안에서 죄를 지어 육체적으로 죽는다(창3:19; 고전15:22).

| 아담 | 그리스도 |
|-------------------|---------------------|
| 옛 세상을 지배할 권리를 받음 | 새 세상의 왕으로 오심 |
| 죄를 지음 | 십자가의 순종은 의와 청의를 가져옴 |
| 왕국을 잃어버림 | 아담의 것을 되돌려 놓음 |
| 모든 인류는 정죄 받고 죽게 됨 | 더욱더 복됨(하나님의 아들들이 됨) |

구약 성경은 항상 첫째와 둘째를 다룬다.

가인과 아벨, 에서와 야곱, 야벳과 셈, 므낫세와 에브라임, 사울과 다윗 등

아담은 오실 분의 모형(롬5:14): 고전15:47, 첫 아담과 둘째 아담의 시험

다시 태어나는 것이 필요하다(요3:7).

창세기 강해 제14과

창4:1 가인: 쇠 창(iron spear), 여자의 씨로 생각함,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삼상16:6-7). 안다(know), 성경은 동침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창4:2 아벨: breath(공허한 것, vapor, vanity; 약4:14)

창4:3-5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들 중 하나, 종교와 구원의 성경적 정의

시간이 흐른 뒤에(어떤 주기가 끝난 뒤에), 가인은 철저한 종교인이었다(장소와 시간과 예물을 앎;

자기 방식대로, 가인의 길(유11). 롬10:1-10, 삼17:5, 12-13

이들은 아담의 교육을 받았음에 틀림없다(엡6:4)

하나님이 원하는 것: 사1:10-17; 시51:16-19; 미6:6-8; 벤전1:18-19

꾀(출12:13)

바른 것을 드림, 하나님이 즉각 받음(창4:7), 절대적 확신이 생김(롬8:38-39)

히11:4: 아벨과 가인의 믿음의 차이

창4:6-7 주님의 권고(사1:18-20)

잘 행하면(롬2:7-8), 죄(Sin)가 처음 등장함, 문에서 기다림(장막 집), 그의 열망: 죄의 열망(롬6:15-23)

창4:8 아벨 살해— 아벨 최초의 대연자(눅11:51), 가인: 최초의 살인자(가인의 길: 요일3:12)

兜(흉)

순교,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요일3:7-12)

창4:9 동생을 지키는 자

창4:10 아벨의 피 소리(히12:24; 계6:10), 피는 피로 씻긴다(창9:6; 민35:33; 마27:25)

창4:11-12 가인의 저주, 가인은 최초로 저주 받은 사람(비교 창3:17; 창9:25)

창4:13-15 주님의 궁휼, 13절과 스9:13 비교

나를 찾는 모든 자(창5:4), 아담에게는 많은 아들딸이 있었다.

표(mark; 갤9:4; 계14:1; 13:1,16-17)

창4:16-24 가인의 아내(어디서 얻는가?), 근친결혼?, 가인의 가족, 왕국(욥21:12-15)

라멕(19절): 일부다처

창4:25-26 셋(뜻: 지정된 자), 에노스(뜻: 연약한 자)

주의 이름을 부르다: 1. 공적 예배(기도하다), 2.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다.

창5:1 아담의 세대들(마1:1)

창5:2 아담이라 부르심, 이브는 아담이 붙여 준 이름

반복하는 이유: 1. 하나님은 창조자, 2. 사람이 창조된 날이 있다, 3.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4.

남자와 여자로, 5.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심, 6.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름을 주심

창5:3-5 셋은 아담의 형상과 모양대로(시51:5; 요3:3,5), 은혜는 혈통을 따르지 않는다(요1:12-13).

롬5:12-21

아담이 죄를 지을 때에 우리가 그의 허리에 있었다(비교 갈2:20).

족장들이 모두 장수함(900-950세 정도), 그들이 모두 죽음

아담은 930세에 죽음.

창5:21-27 에녹(히11:5)

에녹(유14), 동행(암3:3): 가정 생활하면서, 히11: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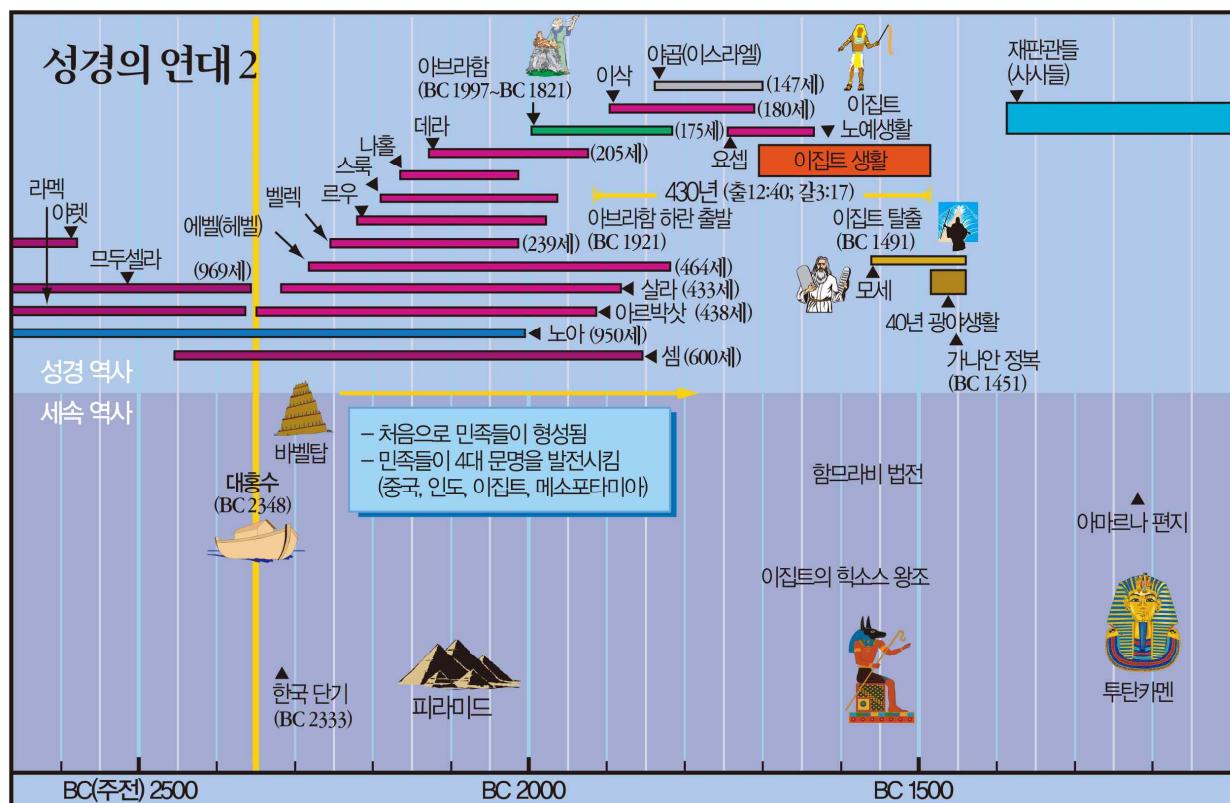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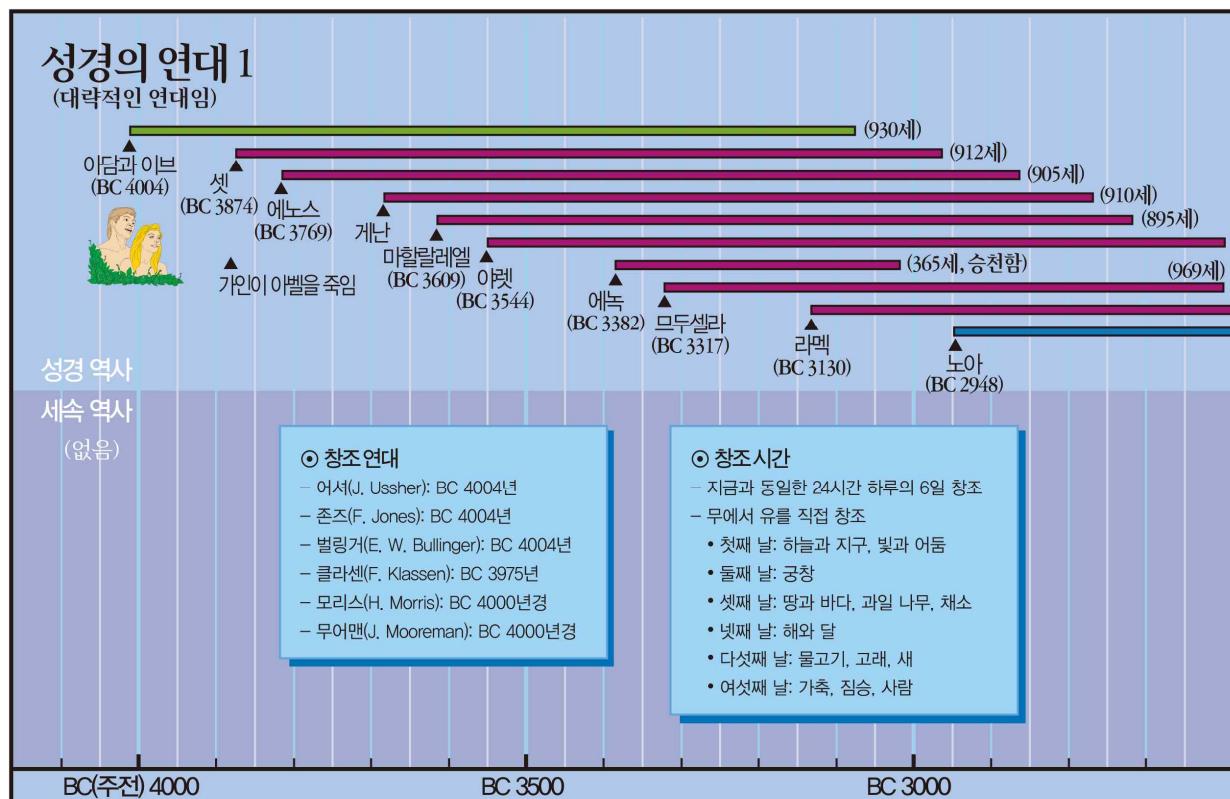
휴거되는 모습의 예표(살전4:16-17; 고전15:50-52)

므두셀라: 죽을 때에 그것이 보내어질 것이다. 그것은 대홍수(노아의 600세에), 그가 죽던 해에 홍수가 생김. 969세로 최장수 인물임

창5:28-32 라멕, 창4장의 라멕과 다른 인물, ‘강하다’는 뜻,

노아(안식): 셋의 후손들은 안식을 원함. 노아의 선조들은 대개 100세에 아이를 낳음, 노아는 500세에 낳음,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생김

창세기 강해 제2부



창6:1-4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Angel) 임무를 수행하는 자(심부름꾼). 이것은 히브리말이나 그리스말 모두 사자(使者)를 의미하며 그래서 그렇게 번역된 곳도 있다(마11:10; 뉴7:24).

이 말은 종종 보통의 사자에게 적용되었고(욥1:14; 삼상11:3; 뉴9:52), 대언자에게(사42:19; 학1:13), 제사장에게(전5:6; 말2:7) 그리고 심지어 움직이지 않는 것에게도 적용되었다(시104:4; 고후12:7). 한편 일반적인 의미로 이 말은 그리스도에게도 적용되었고(말3:1) 그분의 복음의 사역자들과 교회의 감독(목사)들에게도 적용되었다(계2:1, 8, 12).

성경에서 천사는 말은 능력이나 지혜에서 사람보다 고등한 인격체 즉 하나님 주변에 둘러 서 있는 자들을 가리킨다. 하나님은 그들을 사역자로 사용하여 세상사를 집행하시기도 하고 개인이나 국가의 혹은 전 인류의 복지를 증진시킨다(마1:20; 행7:30 등). 그들은 순수한 영으로 혹은 영적인 몸을 가진 존재로 존재하며 특별한 경우에는 완전한 남자의 모습으로 사람이 알아채지 못하게 나타난다(히13:2).

천사는 현현할 때 꼭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사람이 하는 것과 같은 것을 행한다(창19:1, 3, 소돔의 남자들의 성적 만족의 대상, Sodomites, 신약의 예: 행10:3; 30; 계21:9; 17 만나: 천사들의 음식(시78:24-25)

성경은 천사를 언급하면서 언제나 남성 단수 대명사 he를 사용하며 이로써 천사들이 남성임을 보여 준다. 그러므로 성경에는 여자 천사나 아기 천사 혹은 날개 달린 천사는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한편 천사들은 우리의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된 것으로 보인다(욥38:7).

성경은 천사의 수가 매우 많음과(단7:10; 마26:53; 뉴2:13; 히12:22) 그들의 힘이 매우 강력함을 보여 주고(왕하19:35; 시103:20; 벤후2:11; 계5:2; 18:21; 19:17) 그들의 일을 보여 준다(삿13:20; 단9:21-23; 마13:49; 26:53; 행27:23; 계8:13). 천상에는 천사들과는 다른 종류인 그룹, 스랍 등이 있다(사6:2-6; 갤10:1). 천사들 가운데는 천사장이 있고 천상의 존재들 가운데는 왕좌, 통치, 권능, 정사 등 여러 등급이 있다(골1:16; 계12:7).

천사들은 성경의 여러 사건에서 언급되며 한 마디로 그들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한 '섬기는 영들'이다(시91:11; 103:20; 히1:14). Spirits 그러므로 우리는 그들을 신뢰하거나 그들에게 경배하거나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해서는 안 된다(계19:10; 22:8-9).

성경은 개인에게 보호 천사가 있음을 분명히 보여 주지는 않지만 천사들이 크리스천을 위해 일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 준다(마18:10; 뉴16:22; 히1:14). 특별히 천사들은 사람의 구원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뉴2:10-12; 15:7, 10; 벤전1:12) 성도들과 더불어 영원토록 하늘의 복을 누릴 것이다(히12:22).

사람의 창조 전에 천사들의 일부가 루시퍼와 함께 하나님을 대적하고 타락하여 사탄의 천사들 즉 마귀들이 되었다(마25:41; 계12:9).

창세기 강해 제21과

하나님의 아들들(Sons of God) 경건한 셋의 후손들 혹은 천사들

성경은 분명하게 그들이 천사들이라고 말하며 요세푸스의 저서에서 볼 수 있듯이 정통 유대인들 역시 그들을 천사들로 본다. 마틴 로이드 존스, 매튜 헨리, 김상복 목사 등

창6:2, 4에 나오는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며 이것은 ‘창조의 하나님으로서의 주님’을 가리킨다. 그래서 창1:1의 하나님은 엘로힘이며 그 뒤에도 엘로힘은 계속해서 창조주로서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된다. 구약성경에는 단 한 번도 구속의 하나님을 지칭하는 여호와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여호와(주)의 아들들’이 나오지 않는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칭호는 구약성경에 총 다섯 번 나오며 그 다섯 번 모두 ‘창조에 의한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을 의미한다(창6:2, 4; 롬1:6; 2:1; 38:7). 창세기 6장에는 ‘경건한 셋의 후예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파하는 말이 있다. “당시에 땅에는 거인들이 있었고 그 뒤에도 있었으니”(창6:4).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거인들이 있었다.”

홍수 이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고 홍수 이후에도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에게로 들어가 아이들을 낳았다. 그런데 만일 이 구절이 홍수 이전의 경건한 셋의 아들들과 불경건한 개인의 딸들을 의미한다면 홍수 때에 셋의 아들들과 개인의 딸들이 다 흙 속에 묻혀 버렸을 터이므로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는다. 이 문제에 대한 단 한 가지 해결책은 하나님의 아들들은 타락한 천사들이며 사람들의 딸들은 육신을 갖고 있는 여자들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경건한 사람이 불경건한 사람과 결혼해서 거인을 낳은 것은 성경이나 세속 역사에 없다.

한편 여기 나오는 거인은 영적 거인이 아니고 실제적 거인들로 홍수 이후에 여러 이름으로 불렸다: 엠 족속(창14:5; 신2:10-11), 수스 족속(창14:5). 아낙 족속(신2:10-11; 수11:21-22), 르바 족속(창14:5; 15:20), 삼숨 족속(신2:20). 사무엘기상 17장에 나오는 거인 골리앗은 적어도 3.3미터나 되는 신장을 갖고 있었으며 바산의 왕이던 거인 옥은 길이가 4.2미터, 너비가 2.1미터나 되는 침대에서 잠을 잤다(신3:11).

신약성경 역시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였음을 보여 준다. 유5-7에서 유다는 (1) 이집트의 속박에서 구원을 받았으나 후에 불신앙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신 이스라엘 백성과 (2) 하늘을 떠나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행한 불순종한 천사들과 (3) 낯선 육체를 따라가며 음행을 저지를 연고로 죽어서 영원한 불의 보복을 받은 소돔과 고모라의 거주민들에 대해 말한다. 첫째 사건은 민수기 14장에 기록되어 있으며(가나안에 들어가기를 거부함) 셋째 사건은 창세기 19장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구약성경 전체에서 유대인 신자들에게 둘째 사건을 기억나게 해 주는 구절은 창세기 6장 말씀뿐이며 따라서 창세기 6장의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들이다. 한편 사도 베드로 역시 벧후 2:4-6에서 같은 사실을 보여 준다.

어떤 이들은 “부활 때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아니하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다.”(마22:30)는 말씀을 인용하여 천사들이 결혼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 구절은 “부활 때에 어느 누구도 결혼하지 않으며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결혼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이것은 결코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육체적인 관계를 맺을 수 없음을 말하지 않는다. 실제로 성경에는 성이 없어 중성처럼 행동하고 중성처럼 보이는 천사는 단 한 명도 없다. 성경에 등장하는 천사는 다 남성이며 남자처럼 생겼고 그래서 종종 남자들로 오인되곤 했다.

성경에 언급된 거인은 모두 고대에 유명한 남자들이며(창6:4) 여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아이가 수태될 때 아이의 성(性)을 결정하는 것은 남자이다. 그런데 천사들 중에는 여성이 없으므로 타락한 천사들의 정자는 단지 남자만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즉 타락한 천사의 성염색체가 모두 YY이고 이것이 여자의 성염색체 XX와 결합하면 언제나 XY가 되어 남자만 나올 수 있다.

적용: 노아의 때, 롯의 때(눅17:26-33; 단2:43)

창세기 강해 제22과

창6:3 120년? 그도 육체이기 때문이다(also, 짐승 or 천사(유7; 시82:5-7))

120년: 끝을 낸다(히11:7; 벤전3:19-20; 벤후2:5). 더 이상 대언자들을 보내지 않는다. 사람의 수명이 120년이 되는 것은 성경 자체가 부인한다. 그러므로 노아는 480세 되었을 때에 세상 종말의 메시지를 받았고 의의 선포자가 되었다.

창6:5-6 항상 악하다(롬1:18-32), 마음(대상28:9; 렘11:20; 17:10)

마음의 생각들(잠4:23), 노아의 날들(BC 3000-2350)

God repented: repent(마음과 행동을 바꾸다)

회개(Repentance) 어떤 일을 행한 것에 대한 유감과 슬픔과 더불어 그렇게 하지 않았어야 한다는 간절한 소원이 나타나면서 마음을 바꾸어 행동으로 돌이키는 것.

가룟 유다처럼 단순히 자기가 행한 일을 후회하는 경우에도 영어로 같은 단어가 쓰였다(마27:3). 서서의 이야기(히12:17; 창27:1-46). 한편 성경은 하나님도 repent한다고 표현하는데(창6:6; 론3:9-10 등) 이것은 결코 그분께서 사람처럼 무언가 잘못한 일에 대해 후회하는 것을 뜻하지 않으며 다만 그분께서 어떤 일에 대해 심히 슬퍼하는 것이나 그분의 섭리 속에서 사람이 마음을 바꾸듯 마음을 바꾸어 다른 행동을 취하는 것을 뜻한다.

한편 복음이 말하는 회개 즉 생명에 이르게 하는 회개는 죄를 슬퍼하고 죄 지은 것을 미워하며 그것을 철저히 증오하면서 되돌아서서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과 명령들에 순종하며 사는 것을 뜻한다.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참된 회개가 나타나며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은 죄들의 용서가 거쳐 주어진다(마4:17; 행3:19; 11:18; 20:21; 26:20). 따라서 사람의 구원에 있어서 회개와 믿음은 빼려야 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참된 회개는 다윗이 뱃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야를 살해한 뒤에 나단 대언자의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키는 데서 발견된다(시51). 신약성경에서 침례자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는 회개하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나타났으며 회개하지 않으면 멸망한다고 말씀하셨다(눅13:3, 5). 예수님은 또한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의 눈앞에서 기쁨이 있다고 말씀하셨다(눅15:10).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그분의 제자들은 줄곧 회개와 믿음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행2:38; 3:19; 20:21; 26:20). 회개가 일어난 곳에서는 악을 버리고 죽은 행위로부터 떠나는 일과(행8:22; 히6:1)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 발생한다(행20:21; 계16:9).

회개는 하나님의 뜻이며(눅15:7-10; 벤후3:9) 동시에 그분의 명령이다(막6:12; 행17:30). 따라서 회개 없이 구원받는 일은 불가능하다.

한 사람이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께로 180도 돌아서는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나며 그 이후에 자신이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은 죄를 고백한다고 말한다(요일1:9).

하나님의 마음이 괴롭다: 부모의 심정

창6:7-8 항상 악하다

Grace(총 170회): 창6:8, 19:19...눅2:40; 계22:21

여기의 은혜는 신약시대의 교리적 의미의 은혜가 아니다(구약의 경우는 대개 호의의 의미이다).

은혜(Grace): 하나님의 은혜는 죄인인 사람에게 하나님이 거저 베푸시는 사랑과 긍휼이며 이것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계획 안에서 확연히 드러난다(요1:17; 3:16; 롬3:24-26). 오직 하나님의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사람은 그분의 긍휼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사신 값진 복들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인류 구속 계획의 근본 원천이다(롬1:16; 딤후1:9).

바로 이 아버지의 은혜와 죄인들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는 하나로 연합된다.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주시고 아들이 값을 치른 그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도록 효과적으로 그것을 적용시킨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있는 은혜와 모든 거룩함은(벧전1:15-16) 그런 것들의 유일한 근원이신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오며 그리스도의 복음과 성령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의 유일한 통로이다.

이런 차원에서 복음의 모든 열매와 복은 은혜라 불릴 수 있다(고후8:7; 빌1:7). 이뿐 아니라 중생, 용서, 조명, 성화와 각종 선물(은사)과 그리스도인의 성격과 영존하는 구원도 다 은혜라 할 수 있다(벧전1:13).

하나님은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것 즉 공기, 햇빛, 물 등을 모두 거저 주신다. 이런 것을 자기의 행위로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다. 더더욱 사람이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은 사람의 행위와 공로로 얻을 수 없다. 따라서 하나님이 거저 주지 않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을 사람이 하나도 없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엡2:8).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주시려 하나 당사자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유 의지를 가지고 그분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다시 태어나는 일이 생긴다.

엡2:7은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을 잘 보여 준다. “이것은 그분(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친절 속에 담긴 자신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다가오는 시대들 속에서 보여 주려 하심이라.”

창세기 강해 제23과

창6:9 의롭고 완전한 사람, 의롭다: 믿음으로 살기에(히11:7; 갤14:14, 20)

완전하다: 죄가 없다는 뜻이 아니다(욜1:1, 8)

성경의 'Perfect' 용례: 지금 다루고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어떤 사람이 사물이 의롭다는 뜻이다.

마5:48(편견 없이 행하라), 놀13:32(사역의 끝), 고전2:6(진리를 아는 성도들)

엡4:12(성도들을 세우는 일)

히2:10; 5:9: 모든 면에서 구속을 이루시기에 합당하시다, 거룩히 구별되시다, 절정에 다다르시다.

창6:9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창5:24), 노아와 에녹 비교, 죄를 이기는 삶, 꾸준히 믿음을 지속하는 삶(엡5:2, 8; 갈5:16, 25)

창6:10 세 아들들

창6:11 땅도 부패함,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비교해서

창6:12 모든 육체가 자기의 길을 부패시켰다(거인들, 하나님의 아들들, 시82:5-7)

홍수 후에도 거인들이 또 나타남(신2:10), 이스라엘이 진멸하지 못함, 그 뒤 400여년이 지나서 또 골리앗과 같은 거인이 등장함

창6:13 노아의 선포 내용(벧후2:5), 심지어 짐승까지도

창6:14-16 방주: 고펠나무, 300, 50, 30 큐빗

방주라는 말은 단순히 궤를 뜻하는데(출2:3) 이것은 노아의 방주가 항해를 하는 배라기보다 단지 물 위에 떠 있는 집임을 보여 준다. 이 배는 3층으로 구성되었고 측면에 문이 있었으며 위에 즉 지붕에 창문이 있었다(창6:16; 8:13).

1큐빗을 45센티미터로 환산할 때 방주의 크기는 길이, 너비, 높이가 각각 135, 22.5, 13.5미터였다.

축구장 길이 105m, 폭 68m

창6:17-19 온 땅을 덮은 대홍수

이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노아의 후손들이므로 대부분 민족들의 전설에는 홍수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집트, 갈대아, 페니키아, 그리스, 중국 사람들의 고대 이야기도 이것을 지지한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노아의 대홍수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반드시 죄를 심판하시는 것을 보여 주는데 사용되었고(벧후3:5-7) 또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 주는 데도 사용되었다(마24:38).

언약(covenant): 총 292회, 창6:18에 처음 등장함

그 전에도 에덴 언약(창2:16-17)과 아담 언약(창3:14-19)이 있었지만 공식적으로 언약이라는 말은 여기서 처음 등장함.

에덴 언약(창2:16-17): 선악과의 약속

아담 언약(창3:14-19): 뱀과 여자와 남자를 향한 주님의 약속

노아 언약(창9:8-17): 더 이상 홍수는 없다는 약속

아브라함 언약(창12:1-4; 15:1-7; 17:1-8): 땅과 민족과 복의 약속

모세 언약(출20:1-31:18): 이스라엘에 대한 약속

팔레스타인 언약(신29:1; 30:1-10): 이스라엘의 복(순종)과 저주(불순종)에 대한 약속 반복

다윗 언약(삼하7:4-16): 다윗의 씨가 영원히 그의 왕좌에 앉아 다스린다.

새 언약(렘31:31-34): 이스라엘과의 최종 약속 린

창6:20 종류대로, 둘씩 둘씩(암수), 7:2(정결한 것 일곱 쌍, 부정한 것 두 쌍)

창6:21 음식

창6:22 노아가 모든 것에 순종하였다.

창세기 강해 제44과

창7:1 방주: 항해용 배가 아니라 물 위에 떠 있기만 하는 단순한 형태의 사각형 상자(6:14, 고멜 나무, 상자(출2:3), 현금 궤(왕하12:10-11), 추진력이나 제동 장치가 없는 배, 믿음으로 사는 삶 노아: 의로운 사람(창6:9; 겔14:14), 노아 당시의 상황(눅17:27-28) ★★★

'내가 보았다'는 '내가 인정한다'는 뜻이다.

창7:2 정결한 것들은 일곱 쌍, 부정한 것들은 두 쌍, 창6:19 비교, 홍수가 오기 1주일 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수를 계시함, 창7:4, 계시의 점진성

정결한(테호라), 구약성경에 92회: 순수함을 뜻함, 영적, 도덕적 순결함(욥14:4; 시51:10)

더러운 것을 피함으로 얻는 순결함(레11; 신14:3-21)

불순물이 없는 상태, 순금(대하3:4)

정결한 짐승을 더 많이 보존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새들은 정탐용(창8:7-12), 정결한 새와 짐승은 제사용(8:20)

창7:3 씨가 살아남게 하라가 개역성경에는 유전하게 하라로 되어 있음.

창7:4 비로(물로) 심판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처음 언급됨. 방주 건립 자체가 믿음의 시험이다(히11:7). 7일 주기가 언급됨은 이미 1주가 칠일이며 안식일 제도가 있었음을 암시한다.

창7:5 의로운 자라는 것의 반증(창6:22)

창7:6 노아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600세임(아브라함의 경우 창12:4). 성경은 구체적인 역사이다. 노아의 전 생애는 950년(창9:28-29)

창7:7 8명이 방주에 들어감(미션 하우스의 창세기의 발견 책 참조).

船, 義

7명은 노아로 말미암아 은혜를 받음. 사람의 씨를 보존하려는 하나님의 계획

그들이 의인인 것은 결혼을 통해 알 수 있음. 하나님의 계획은 일부일처제(창2:24; 말2:15)

개인의 후손 라멕(창4:19), 하나님의 아들들(창6:2),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일부일처 유지

창7:8-9 짐승들이 스스로 나아와 들어감(즉 하나님의 데려옴). 여자를 만든 이후에도 주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 데려옴(창2:22).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공존함(사11:6-9). 이때에는 초식 동물임.

창7:10 땅 위에의 땅은 earth 즉 지구이다. 전 세계적인 홍수(마24:38-39; 벤후3:6)

홍수를 기다리는 7일(4절)

홍수를 기다리는 7일(10절)

홍수 40일(17절)

물이 150일 동안 불어남(24절)

물이 150일 동안 줄어듦(8:3)

40일 동안 기다림(8:6)

기다리는 7일(8:10)

기다리는 7일(8:12)

창7:11 큰 깊음의 샘들(지하수)이 모두(개역은 모두 제거) 터졌다. 하늘의 창들(히브리적 표현, 롬38:22)이 열렸다. 하늘에 우박, 비 창고가 있다고 생각함. 궁창 위의 물(창1:7) 즉 수증기 막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 지구 온난화: 사람과 짐승의 크기, 수명(홍수 이후), 아열대 기후, 시베리아의 매머드

창7:12 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소낙비, '쏟아졌다'는 원래 '있었다'는 말이다.

창7:13 바로 그 날에, 600년 2월 17일(11절), 가족이 들어간 것을 다시 강조함(7절), 반복

창7:14 그것들의 종류대로(1장에만 10번; 창7:14; 8:19), 종의 변화는 없다(고전15:38-39).

창7:15 몸 속에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육체는 죽임을 당함

창7:16 주께서 그를 안에 넣고 닫으시니라. 여호와께서 구원의 보장이시다. 은혜의 하나님

창7:17 모든 것이 죽고 노아의 방주만 드디어 물 위로 들렸다.

창7:18 물들이 넘쳐서 불어났다는 것은 홍수, 지하수, 해일 등으로 급격히 불어남을 뜻한다.

창7:19 모든 산을 덮음. 즉 전 세계적인 홍수임.

창7:29 15큐빗 위로, 가장 높은 산보다 7m 위로 물이 덮임.

창7:21-22 땅 위에서 움직이던 모든 육체가 죽음. 죽음 강조

창7:23 노아와 그의 가족들만 살아남음

창7:24 홍수가 150일 동안 있음.

홍수의 증거들:

- (1) 물의 양: 2.7킬로미터 높이
- (2) 방주의 탁월한 설계(300*50*30 큐빗, 창6:15), Korean experiment
- (3) 지구 곳곳에서 발견되는 화석들
- (4) 지구의 고지대에서 바닷물고기 화석들이 발견됨
- (5) 지구 구성물의 90%가 화성암(마그마가 식어서 만들어진 암석)이나 지표면은 75%가 퇴적암이다.
- (6) 지구 내륙의 소금 바다(미국의 솔트레이크 4,400km², 한국 면적 98,000km² 카스피해 370,000km²)
- (7) 짐승들은 어떻게 태려웠는가?(호주의 캥거루 등등)
- (8) 공룡은 어떻게 태웠는가?(6일째에 만들어짐), 공룡, 코끼리, 기린 새끼들은 크지 않다. 실제로 공룡은 수백 가지지만 종류로는 50여 가지이다. 대부분의 공룡은 양 크기,
- (9) 몇 마리나 탔을까? 수천 마리에서 35,000마리, 성경의 종(kind)의 개념은 지금과 다르다. 예를 들어 개를 보기 바란다.

50000마리가 타면 어떨까?

$300*50*30*0.45*0.45=41,005\text{m}^3$, 기차 화물통 560개 분량

화물통 1개 당 240마리

$50,000\text{마리}/240= 208\text{개의 화물차(전체의 }37\%)$

- (10) 어떻게 먹였을까? 음식 준비, 수면, 지금도 몇 명의 농부가 수천 마리의 양을 키울 수 있다.
- (11) 어떻게 비가 모든 생물을 죽일 수 있었을까? 지하수와 하늘의 물이 150일 동안 넘쳤다. 1년 이상 물이 있었다(371일 동안, 7:11; 8:14)
- (12) 물은 어디로 갔는가? 해양에 남아 있다. 땅이 갈라짐
- (13) 에베레스트 산은 어떤가? (홍수 전에는 산이 높지 않았다).
- (14) 홍수의 목적(창6:7, 13)
- (15) 그리스도와 방주

창세기 강해 제25과

창8:1 기억하셨다(개역의 권념하다)는 항상 머릿속에 두다를 뜻함. 아브라함(창19:29), 라헬(창30:22-24), 이스라엘(출2:24) ★★★

그분은 노아뿐만 아니라 모든 생물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창8:2 홍수의 근원 세 가지를 제거함(창7:11-12).

창8:3 물들이 되돌아감. 주로 깊음의 샘들과 구름으로

창8:4 7월 17일에 아라랏의 산들 위에 안착함(홍수의 시작 2월 17일), 아라랏은 ‘거룩한 땅’을 뜻함. 이것은 아시리아어로는 우라르트이고 페르시아 사람들은 이것을 ‘노아의 산’이라 부른다. 터키와 이란의 경계에, 5200m 높이, 전 세계적인 홍수 반증

창8:6 방주의 창을 엷(창6:16)

창8:7-12 까마귀와 비둘기

까마귀: 부정한 새(레11:13-15),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욥38:41), 우는 까마귀 새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준다(시147:8-9), 엘리야에게 먹이를 날라다 줌(왕상17:4-6)

비둘기: 정결한 새(신14:11), 성령님의 상징(요1:32), 무해한 짐승(마10:16)

히브리어 이름은 요나(대언자 요나와 같다).

집비둘기(dove)와 산비둘기(turtle dove)로 나뉜다. 희생 제물이 되는 유일한 새, 범법 헌물(레5:7; 12:6 등), 정결례에 쓰는 새(레12:2-8; 뉘2:22-24)

까마귀와 비둘기는 서로 다른 모습, 특성을 갖고 있지만 노아에게 봉사를 했다. ★★★

창8:7 까마귀가 물이 마를 때까지 왕래함.

창8:8-10 비둘기, 자리를 못 찾음, 이례를 기다림

창8:11 보라, 감탄사, 잡아 뜯은 올리브 잎사귀: 물에 떠도는 것이 아니고 땅에서 뜯은 것, 개역성경은 새 잎사귀, 비둘기와 올리브 가지: 평화의 상징

창8:12 노아의 신중한 태도: 현대인의 조급함(롬5:3-4), 우리는 어떤가? ★★★

10절과 12절의 이례: 1주일 주기

창8:13 601년 1월 1일: 지면이 마름, 새 해 첫 날에 물이 걷혔다. 그러나 거주하기에는 아직 적합하지 않음.

창8:14 2월 27일에 땅이 완전히 마름.

창8:15 나가라는 명령을 기다리며 57일을 더 있음(총 370일 동안).

창8:16, 17 주께서 노아의 가족들과 모든 짐승들에게 관심을 두심. 다산하고 번성하라(창1:28). 이것이 죄를 지은 후에는 저주가 됨(창3:16-19).

창8:18, 19 노아의 즉각적인 순종(히11:6), 그것들의 종류대로: 진화론 불가능

창8:20 제단을 쌓고 번제 헌물을 드림: 방주에서 나와서 처음 한 일, 제단이 처음 언급됨(출20:25) 제단을 쌓은 것과 탑을 쌓은 것의 대조(11:1-4)

번제 헌물: 레위기에 언급된 5가지 헌물 중 첫째 것(1장), 전적인 헌신

1. 구원의 감사, 2.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약속(롬12:1) ★★★

창8:21 하나님이 냄새를 맡으심으로 사람이 깨닫게 하심(가인과 아벨의 경우, 창4:4-5). 불순종하는 자가 드리는 제물의 냄새는 맡지 않음(레26:31; 암5:21-22)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제물의 내용이 결정된다).

사람으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았음. 동시에 창조 세계도 저주를 받아 신음한다(롬8:19-22).

사람이 마음에서 상상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하다(창6:5; 롬1:21). 성악설

악하다(마7:11; 렘4:22). 잠22:6의 아이들 훈련

사람은 태어나면서 다음과 같이 악한 것을 지니고 있다.

상상하는 것(창6:5), 눈(롬3:18), 입(롬3:14), 혀(롬3:13), 마음(렘16:12), 생각(사55:7-8), 귀(행28:27), 손(사59:3), 발(롬3:15), 길들(사55:7-8)

땅은 다시 심판을 받는다(벧후3:10, 12). ‘전에 행한 것 같아’(무지개 약속: 9:8-16)

창8:22 모든 것이 그치지 않음: 하나님의 은혜, 사계절이 생기고 빙하가 생기고 변화가 생김
원래 해와 달은 계절을 위한 것이지만(창1:14-18) 이때에 비로소 뚜렷한 계절이 생김.

창세기 강해 제26과

창9:1 다산하고 번성하라(창1:28),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참조9:25)

아담과 노아: 땅의 유일한 소유자, 하나님의 위임을 받음, 이름이 나온 세 아들을 가지고 있음, 아들들 중 하나는 그리스도 예표, 하나는 적그리스도 예표, 가인과 가나안은 저주를 받음, 아담과 노아는 벌거벗은 채로 죄를 지음

창9:2 원초적 두려움, 다스리도록 넘겨주었다

창9:3 짐승을 먹는 것을 허락함, 그전까지는 초식이었음(사11:1-11 참조, 천년왕국 때의 복원)

창9:4 피째 먹지 말라(레17:11, 14), 율법 하에서는 레위기 17장, 은혜 하에서는 행15장, 그 이후 (딤전4:3-4)

창9:5 형제의 손에서 요구한다. 사형제도 인가, 율법 전에 여기, 율법이 있는 동안에(도피 도시들, 민35), 후에 (행25:11; 롬13:1-4)

창9:6 창세기 4장에서 계시록 19장에서 끝나며 사26:21이 최종적인 것이 됨

첫째 피는 창세기 3장의 짐승의 피(어린양), 그 다음은 목자의 피(창4:5-8)

선한 목자가 피를 흘림으로 인해(골1:14) 성도는 화평을 얻고(골1:20), 의롭게 되고(롬5:9), 깨끗하게 되고(요일1:7), 정결하게 되고(히9:14), 구원을 받는다(엡2:13). 그 피는 하나님의 피이다(행20:28)
“성경은 피 이야기이다.”(요일1:7)

하나님의 형상으로(창1:26-27)

창9:7 1절의 반복이며 동시에 6절의 문맥에서 보아야 한다.

창9:8 노아 언약: 대상 전 인류와 창조물(9, 10절)

창9:9 ‘보라, 내가’가 개역에는 삭제됨, 언약은 ‘베리트’인데 쪼갠다는 뜻이다(창15:9-11).

창9:11 전 세계적인 홍수임을 입증함

창9:13-17 무지개 증표

창9:18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였다. 여기서부터 함은 독특한 존재로 나옴

창9:19 이 셋이 모든 사람의 조상이다.

함: 아프리카, 이집트, 셈: 유대인, 아시아인, 야벳: 유럽인, 아메리카인, 예언대로 됨

창9:20 농부(husbandman), 포도원을 세움

창9:21 포도주를 마시고 취함(엡5:18), 방심할 때에 시험이 옴(전10:1), 다윗과 뱃세바(삼하11:1-2)

창9:22 ‘하체를 보고’가 아니라 ‘벌거벗은 것을 보고’임, ‘고하매’는 ‘기뻐하며 말했다’의 뜻임

창9:23-24 레20장의 명령을 수행함

창9:25 가나안이 저주를 받음(함은 이미 복 받은 자, 1절), 함의 네 아들 중에서(창10:6) 가나안이, 후에 가나안 땅, 가나안 족속이 파멸을 당함(수15:16; 19:25),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행8)

창9:26 셈은 복을 받음, 메시아 계보

창9:27 야벳은 셈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음

함: 아프리카, 이집트, 셈: 유대인, 아시아인, 야벳: 유럽인, 아메리카인, 예언대로 됨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구분이 없다(갈3:26-29), 영적 이스라엘과 육적 이스라엘

창9:28-29 노아는 950세, 야렛(962세, 창5:20)과 므두셀라(969세, 창5:27) 다음으로 장수한 것임.

노아 사망후 2년 뒤에 아브라함이 출생함, 데라와 동시대, 바벨 탑 사건도 보고, 바벨의 창설자 니므롯 (구스의 아들)도 봄

창세기 강해 제27과

셈과 함과 야벳의 세대들(1절), 야벳(2-5), 함(6-20), 셈(21-31), 결론(32), 대상1:5-27

셈은 ‘이름’, ‘명성’, ‘명예’, ‘평판’의 뜻을 지닌다. 아시아 족속들의 조상

함: ‘따뜻하다’, ‘덥다’를 뜻한다. 함은 시적으로 이집트를 가리키기도 한다(시78:51; 105:23, 27).

야벳: ‘증대’, ‘확장’(창9:27), 인도-유럽 족속의 조상

10장: 인류의 뿌리와 족속과 지명과 나라의 기원을 다룬다. 특히 메시아 계보: 창1-5장은 노아까지,

그 이후 노아부터 에벨과 벨렉까지의 계보

창9:1의 성취, 9:19 말씀 설명, 노아(1), 세 아들(3), 70개 가지: 야벳(14), 함(30), 셈(26)

창10:1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창10:2-5 야벳의 계보, 크게 중요하지 않음

창10:2 고멜: 마대(메대), 야완(그리스), 두발과 메섹: 겔38:2; 39:1에는 마곡의 속국, 소아시아 동부, 흑해 지역, 곡과 마곡의 전쟁 때 이스라엘을 치는 국가들(겔38:2; 5-6)

창10:3 아스그나스: 게르만 족, 도갈마: 터키 동부

창10:4 다시스(스페인), 깃딤: 키프러스 섬

야벳의 자손은 지중해 족, 북서, 북동 유럽 족, 알프스 족, 힌두 족 등이 되었다.

창10:5 섬의 개념, 언어와 가족과 민족

국가의 특징: 한 선조, 영토, 언어, 씨족과 부족으로 구성된다.

창10:6-20 함의 계보, 15절 할애, 매우 중요함

구스: 에티오피아, 미스라임: 이집트, 가나안: ‘낮은’의 뜻을 지닌다. 팔레스타인, 봇: 리비아

창10:7 하월라: 아라비아 사막 지역, 세바와 드단: 아라비아 반도

창10:8 니므로: 강력한 자, 통치자의 자리에 오름, 주 앞에의 ‘앞에’는 ‘대적하다’의 뜻이 있다. 난폭한 사냥꾼, 바빌론의 시조, 바벨 탑 건축의 주동자, 세미라미스(렘44:15-19, 18-19의 하늘의 여왕), 담무스(겔8:14)

창10:10 시날은 ‘뒤집어엎다’의 뜻을 가지고 바벨은 ‘혼잡’, ‘혼동’의 뜻을 가진다. 여기서 바벨은 함무라비의 바빌론 제국의 수도

악갓: 아카드 왕조의 수도

창10:11 앗수르가 나아가 여러 도시를 세움

창10:14 블레셋은 가슬루힘에게서 나옴(암9:7, 크레테), 미스라임의 후손

창10:15-19 가나안의 후손들, 창10:15 시돈, 페니키아 족속, 수도, 헷: 히타이트 족

창10:16 여부스 족속: 예루살렘 주변 족속들(수15:8; 삿1:21), 아모리 족속: 요르단 동서편 산에 거하던 사람들(창15:16)

창10:17 히위 족속: 세겜과 기브온, 헤르몬 산 아래 거주함(수9:7; 11:3),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차지함(수9:3-21)

창10:19 가나안 족속들의 지경

이들은 이집트, 팔레스타인, 이디오피아, 아프리카 사람들의 조상

창10:21 셈은 그 형 야벳의 동생, 창5:32를 보면 셈과 함과 야벳으로 나온다. 개역성경 등은 창10:21에서 셈이 야벳의 형이라 말한다. 그러나 마소라들의 기록과 다른 기록들은 야벳이 셈의 형임을 보여 준다. 창11:10은 셈이 노아의 503-4세에 태어났음을 보여 준다. 노아의 홍수: 600세-601세, 2년 뒤는 603-604세, 그로부터 100년을 빼면 503-504년이 된다. 창5:32는 500세에 아들을 낳았음.

에벨은 셈의 증손자, 셈, 아르박삿, 살라, 에벨(24절): Eber은 ‘건너온 자’, 히브리(Hebrew), 창14:13; 수24:3

창10:22 엘람(이란), 앗수르(아시리아), 아람(시리아), 뱃단아람(창25:20; 28:1-7; 31:20; 신26:5)

창10:23 우스(욥의 고향: 욥1:1), 창10:29 오빌(왕상9:28)

창10:25 벨렉의 때에 땅이 나뉨: 실질적인 땅의 분리, 혹은 민족들의 분리, 창10:32 민족들이 나뉨

창세기 강해 제28과

바벨탑 사건과 인류의 분산, 세속적인 왕국과 영적인 왕국의 시작

창11:1 언어의 원래 뜻은 ‘입술’, 말(speech)의 뜻은 ‘말하다’이다. 언어는 인간이 개발한 것이 아니라 부여받은 것이다. 언어의 다양성은 죄를 보여 준다.

창11:2 동쪽으로부터 이동함, 시날 땅을 만남, 바빌론 남부

창11:3 자연석 대신 벽돌을 만듦, 벽돌을 만들기에 최상의 흙이 이 지역에 있다

창11:4 도시와 탑을 쌓음. 탑은 이방신의 신전인 지구라트였을 것이다. 피라미드 형태의 높은 건축물: 기초는 사방 885m, 높이는 300m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됨. 우리를 위하여(2번), 우리의 이름을 내자: 명예 추구(잠10:7; 행12:22-23)

흘어짐을 면하자: 창9:1을 정면으로 도전함, 행17:26, 아마도 노아의 대홍수 같은 것을 두려워함: 하나님의 약속(창9:15-16)을 믿지 않음, 사람의 모임은 하나님 중심이어야 한다(시34:3; 고전10:31) 시2:1-3과 비교, 여기서도 창3:4의 마귀의 유혹이 나옴

창11:5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옴, 시2:4

창11:6 백성도 하나, 언어도 하나

창11:7 우리가 내려가자. 삼위일체의 모습(창1:26; 사6:8)

창11:8 그들이 도시를 짓는 것을 포기함, 하나님의 은혜: 당장의 죄를 막고 미래의 것도 미리 막음(아담과 이브의 경우 선악과에 접근하지 못하게 함)

창11:9 바벨과 그 이유, 거기서 주님께서 그들을 모두 흘음(세계 4대 문명, 중국, 인도,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교회와는 대조적이다(고전14:33, 혼동의 하나님아 아니다).

바빌론과 새 예루살렘은 서로 대조적이다(계17-19). 땅의 바빌론은 후에 죄들로 인해 하늘에까지 닿는다(계18:5). 이것은 창녀이나 새 예루살렘은 신부이다.

모든 세대는 높은 것을 세워 이름을 내려고 애를 쓰지만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인간의 숙원을 모두 해결했다. 언어와 인종에 상관없이 공통의 천국을 소유한다(갈3:27-29).

천년왕국이 되면 모든 민족들이 그리스도에게 나아와 경배한다(계15:4; 습3:9).

교훈: 잠19:21

메시아의 계보(여자의 씨 창3:15)

창11:10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셈에게는 원래 5명의 아들이 있었으나(10:22) 여기서는 아르박삿에게 초점이 주어진다. 여기서 나홀과 테라와 아브람이 나온다.

창11:26 테라의 세대들은 이러하니라. 테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다. 아브람이 맏아들인가? 하란이 맏아들이다. 그런데 맨 뒤에 나온다. 하란의 딸이 나홀의 아내이다.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 나이는 75세(12:4), 테라는 205세에 죽었고 70년을 살며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음. 그러므로 순서대로 보면 아브라함은 135세가 되어서 하란을 떠나야 함. 그러나 아브라함은 75세에 떠나므로 테라는 130세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테라는 우상숭배자였다(수24:2-3)

이스라엘 민족을 시작함

창11:27 아브람은 ‘높은 아버지’라는 뜻인데 아들이 없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의 것과 다르다(사55:8-9).

창11:29 근친결혼, 나홀은 조카와, 아브람은 이복누이와 결혼함(20:12): 종족 보존의 방편으로 이루어짐. 후에 성경은 이를 금함(레18:1-18).

창11:30 사례는 아이가 없더라.

창11:31 갈대아의 우르를 떠나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에 머뭄. 아마도 아버지 테라로 인해.

바벨탑의 사람들은 세상의 지혜를 따랐으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다(히 11:11-12).

당신은 어떤가?

창세기 강해 24

창세기 12-22장(아브라함의 일생) - 1

아브라함의 일생

이름의 뜻: 많은 자들의 아버지, 아브람: 높여진 아버지

출생: 갈대아의 우르, 노아의 아들 셈의 9대손, 데라의 아들

출생부터 사망까지 네 기간

1. 첫째 기간: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고 가나안에 갔다가 이집트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에 가는 기간

우르에서 하란까지 감(창11:27-31; 행7:2-3)

하란에서 떠남: 75세(창12:4), 아버지 집과 분리하고 고향을 등지고 떠나야 함, 자기 형제 나홀을 두고 롯을 데리고 감(요세푸스에 따르면 상속자로 데리고 감). 아브라함 언약(12:1-4)

가나안에 도착함: 모례의 평야, 예발 산과 그리심 산 사이, 제단을 쌓음(창12:6-7).

이집트 생활: 기근으로 이집트로 감. 사라와 파라오 사건(창12:10-20)

가나안으로 되돌아옴: 다시 자기 장막이 있던 곳에 이르러 주의 이름을 부름(창13:3-4).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갈라짐. 롯은 소돔으로, 아브라함은 헤브론의 마므레의 평야로 감

롯의 구출: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롯을 구해 옴

멜기세덱을 만남: 창14:17-20, 나중에 자세히 설명

2. 둘째 기간: 씨에 대한 약속과 언약의 재확인 기간

언약에 대한 꿈(15장): 씨에 대한 약속, 아브라함의 믿음(창15:6), 하나님의 언약 확인, 아브라함의 씨가 가나안을 떠났다가 400년 만에 다시 돌아옴.

이스마엘 출생: 가나안에 거한 지 10년이 지나도 아이를 얻지 못함. 풍습에 따라 하녀를 얻어 아들을 얻음, 86세(창16:16)

3. 셋째 기간: 언약의 확인, 이름 변화, 할례, 천사들의 방문 등이 일어남(창17-21장)

이름의 변화: 아브람이 99세 때에 하나님에 나타나심(창17:1-8)

할례의 표: 언약의 표로 할례를 받음(창17:9-27).

천사들의 방문: 세 천사(창18장), 아브라함의 씨 재확인, 소돔에 대한 아브라함의 청원

소돔의 멸망: 창19장

사라를 아비멜렉에게 빼앗김: 창20장

이삭을 낳음: 21장, 100세에

4. 넷째 기간: 믿음의 시험, 마지막 날들(창22:1-25:11)

아브라함의 믿음의 최대 시험: 이삭을 바쳐야 함(요세푸스에 따르면 그는 20세 정도가 되었음).

사라의 죽음: 127세에(창23:1), 막벨라 굴을 소유 매장지로 삼

이삭의 결혼: 창24장, 리브가

아브라함의 죽음: 175세, 막벨라 굴(창25)

아브라함의 생애의 네 번의 위기:

1. 고향과 친족을 버리는 일(창12:1)

2. 조카와 갈라서는 일(창13)

3. 이삭으로 인해 이스마엘을 버리는 일

4. 이삭을 희생물로 바치는 일(창22:1-19; 希22:1-19)

창세기 강해 3부

아브라함 언약

원래 12:1-4에서 주어졌고 13:14-17, 15:1-7, 17:1-8에서 재확인됨.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주어짐

- (1)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으로(창13:14-15, 17; 창15:7; 18; 17:8)
- (2) 민족(창13:16; 창15:5; 17:4; 렘31:35-37)
- (3) 복을 받는다(창13:14-18)
- (4) 이름이 크게 된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
- (5) 복이 된다.
- (6)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신30:7; 미5:7-9; 족14:1-3; 갤26:2-3)
- (7) 아브라함 안에서 땅의 모든 가족들이 복을 받음

멜기세덱(창14:17-20)

살렘(예루살렘)의 왕,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제사장(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바침).

시110편 설명: 메시아 시편(마22:43-44)

시110:4: 메시아는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히5:6, 10; 6:20; 7:11, 17, 21).

히5:1-11 설명,

히6:20-7장 설명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은 다음과 같은 공통점을 지닌 제사장이다(히7:1-22).

1. 비 레위 지파
2. 제사장 겸 왕
3. 아브라함보다 우월하다(요8:56-58).
4. 시작과 끝을 알지 못한다.

창세기 강해 31

창세기 12-22장(아브라함의 일생) - 2

아브라함의 믿음(창15:6), 할례, 칭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believed). 칭의

15장 6절의 상황: 왕들을 물리침, 그런데 그들이 다시 쳐들어올까봐 걱정이 됨(1절)

아브라함은 이미 씨에 대한 약속을 받았는데 성취가 되지 않았다(창13:15-16).

하나님이 별들을 보여 주시며 네 씨가 이와 같으리라고 약속할 때에 그 말을 믿음(아멘).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약속을 믿음. 후에 성취가 됨

창세기 15장 6절과 관련된 신약성경 말씀: 롬4:3, 9-12; 갈3:6

롬4:1-5는 율법 이전 사람의 예

롬4:3의 counted는 계좌에 넣는다는 말이다. 일을 하면 당연히 보수가 계좌로 들어간다. 일을 안 해도 계좌에 넣어 준다는 말이다.

롬4:5 경건치 않은 자들을 의롭게 만드신다. 우리의 죄들을 그리스도의 계좌로 넣고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 계좌로 넣는다.

롬4:6-8은 율법 시대 사람의 예, 시32:1-2, 뱃세바와의 간음 이후에 지은 시

할례와 칭의

할례는 그가 99세였을 때에 받음(창17:23-27, 24절), 15장 사건은 그로부터 14년 전에 일어남.

15장 사건이 일어날 때 아브라함은 무할례자(이방인)로서 율법 밖의 사람이었다.

할례의 의미: 믿음의 의를 봉인한 표적,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의 봉인이 있다(엡1:13-14). 또 마음의 할례가 있다(골2:10-12).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율법 없이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구원이 모든 사람을 위한 것임을 증언함.

아브라함은 믿는 모든 자의 조상(롬4:16; 갈3:7, 29)

11, 12절 해석

17절: 아브라함은 사람의 노력이 아니라 부활의 권능으로 칭의를 받았다.

18-25절이 이것을 설명한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육신적 힘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렸다. 그는 19절에서처럼 믿음이 오히려 강해짐.

적용: 사람은 자연적인 본성이 죽기 전에는 칭의를 받지 못한다.

신약과 구약의 믿음(faith)은 다른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 베드로, 사도 바울, 10세기 그리스도인, 21세기 그리스도인

무엇을 믿는가?

히11:1-2, 히브리서 11장의 믿음

신구약 전체에서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구한다(창15:6).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 대상이 중요하다, 그분의 성품과 목적에 관해 기록된 계시를 믿는 것이다. 잘못된 예; 행19:16; 요일2:22-23; 요이7-9

믿음은 영적인 것이다(고전2:14; 앱2:8).

믿음은 직관적이다(보는 게 아니다, 고후5:6, 7).

창세기 강해 32

믿음과 행위: 야고보서

크리스천 삶에 대한 강력한 권고의 말씀.

다른 책들 특별히 사도 바울의 책들과는 달리 신학이 주 내용이 아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십자가, 부활, 다시 태어남, 교회, 하나님의 구원 계획 등이 거의 언급되지 않음. 성령님 1차례, 예수 그리스도 2차례 언급됨.

이 책은 교리적 오류를 바로 잡거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 주기 위해 쓴 것이 아니라 크리스천들이 믿는 대로 살 것을 촉구하기 위해 쓴 것임(1:22; 3:13)

중요 주제:

- (1) 시험, 죄(1:2-4, 12-15), 재림, 심판, 인내(5:7-11)
- (2) 믿음과 행위(2:14-26): 야고보서의 믿음은 주로 2:14-26; 1:3; 1:6; 2:1,5; 5:15 등 2:1,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이런 믿음은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것을 반대함(2:2-5).

믿음과 행위(2:14-26), 믿음 혹은 ‘믿는다’는 총 14번 나옴. 비교: 엡2:8-10; 갈2:16

(1) 긍정적인 믿음

1. 행위로 증명되는 믿음(18)
2. 행위와 함께 일하는 믿음(22)
3. 아브라함의 믿음(23), 창15:6, 창22

(2) 부정적인 믿음

1. 행위가 없는 믿음(14, 17, 18, 20, 26)
2. 믿음 홀로만 일하는 믿음(17, 24)
3. 마귀들의 믿음(19)
4. 쓸모없는 믿음(14, 16, 20)
5. 죽은 믿음(17, 26)

14절의 중요성: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것이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님. 이런 사람의 믿음은 15-17에 있는 대로 평가해야 함.

2:14-26은 1:22, 25-26에 연이은 것이고 또 3:13-16도 그 뒤를 따라 나옴. 그러므로 합당한 행위가 없는 믿음은 크리스천 믿음이 아님.

14절 : 그런 믿음은 그를 구원하지 못하며 처음부터 생명이 없음. 죽은 시체와 같음.

야고보서의 행위: 2:15-16처럼 궁휼과 친절을 베풀고 2:21-25처럼 하나님께 순종하고 자신을 맡기는 것이 뒤따름.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행위는 참된 믿음과 중생으로 인해 삶 속에서 드러나는 행위 즉 회심 후의행위를 말한다.

이것은 결코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행위가 아님(2:18; 2:22-23)

이것은 갈라디아서, 로마서의 행위와 다름(회심 전 행위를 말함, 갈2:16; 롬3:28; 10:1-8 등).

(3) 의롭게 됨(be justified) 2:21, 25, 이미 아브라함은 창15:6에서 의롭게 됨

성경의 용례: 롬3:28; 롬4:2; 약2:21; 2:24,25

롬3:4; 딤전3:16, 야고보서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을 말함(2:18).

마11:19 지혜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의 문제점: 1절의 수신자가 훌어진 열두 지파, 따라서 환난 성도(유대인)에게만 해당된다는 럭크맨의 가르침은 거짓임(롬4장, 롬11:6 설명). 이 서신서는 유대인 크리스천에게 주어졌으며 예수님의 말씀 즉 열매로 나무를 안다는 말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마7:15-20). 따라서 이방인 크리스천들도 당연히 행위가 있는 믿음을 가져야 함.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임.

창세기 강해 33

여호와 이레(창22:14)

1. 역사적 배경

- A. 주전 2000년경,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시고 약속을 주심(창12:1-3; 행7:2-3): 땅, 민족, 복의 근원
- B. 창15:5-7, 씨와 땅, 창16:3 86세, 하갈과 이스마엘, 창17:6-8, 99세, 씨와 땅, 21장: 100세, 이삭의 출생
- C. 엘로힘이 나타남(22:1): 아브라함의 순종과 믿음, 이삭의 복종, 하나님의 섭리

2. 이름의 의미

- A. 22:7, 8, Where is the lamb? God will provide himself a lamb: providence
- B. 아브라함의 믿음: 5절 돌아오리라(히11:17-19).
- C. 여호와이레에서 이레(jireh)는 'see' 즉 '보는 것'을 뜻한다.
- D. 하나님은 모든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신다. see=foresee, foreseeing=prevision, provision
- E. 이레는 선견자(seer)를 뜻한다(삼상9:9; 대상9:22; 사30:10).
- F. 이레는 예비한다를 뜻한다(22:8).
- G.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14절), Moriah: jireh, Jehovah-jireh(여호와께서 보신다). 개역성경은 준비하리라로 번역함

3. 이름의 중요성

- A. 구출을 기념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기시킨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실까? 더 순수하고 믿음직한 관계가 성립됨.
- B. 16절: 내가 내 아들을 아끼지 아니한 것처럼...너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므로
- C. 그 장소의 이름이 사람들에게는 속담거리가 되었지만(14절) 아브라함에게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16절: 주가 말하노라(saith, oracle), 약속의 확증(17-18): 씨와 복의 약속
14절: 중세 유대인 주석가는 “주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자신을 보이시리라”로 해석함.

4. 모형과 실체

- A.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고 희생물을 드렸다(창12:8; 13:4 등).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함(히10:4; 사40:16).
이삭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희생 예물이었다.
그런데 이삭은 모형에 지나지 않았다(히11:19). 이삭을 위해서도 양이 대신 죽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이 택한 희생예물을 가르쳐 주신다(미6:6-7).
- B. 모리아: 솔로몬 성전의 터(대하3:1), 다윗이 대신 속죄를 한 곳(대상21장, 21:26).
핵심 요점: 대신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린 곳(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이후)
- C. 대하7장: 솔로몬이 수많은 짐승과 함께 성전을 봉헌함, 주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참, 하나님께서 친히 거기에 마음을 두시겠다고 약속함. 이것은 짐승 희생 이상의 것을 필요로 함.
- D. 실체: 갈보리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대신 속죄
주의 산에서 그것을 보리라(14절), 그것: 양, 대신 속죄 제물(요8:56)
아버지가 아들을 대신 속죄 제물로 주셨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형이다(요3:16; 롬8:3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교훈: 아들의 희생(그리스도의 희생)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It is finished, 요19:30)하실 때에 여호와이레의 모든 것이 실제로 완성됨.
- E. 7절: 어린양(요1:29; 벤전1:18-19), 계5:11-13), see, foresee, prevision, provision
번체 헌물로 쓸 어린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예비하시리라(8절).

창세기 강해 34

유대인

창세기 22장 이후: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이야기

유대인(Jews): 이것은 이방인들 사이에 사는 히브리 사람들을 지칭하는 말로서 특히 바빌론 포로 생활 이후에 많이 사용되었다. 물론 이 말은 그들의 조상 유다에서 나왔다(왕하16:6; 예2:5).

유대인: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보여 주는 강력한 증거, 하나님의 말씀들을 맡음(롬3:1-2).

히브리 사람들(Hebrews):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약속의 땅을 차지한 사람들. 히브리라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먼저 적용되었으며(창14:13) 오래 산 족장들 중의 마지막 사람인 헤벨(혹은 에벨)에게서 유래된 것으로 보인다(창10:25). 그는 아브라함을 비롯한 자신의 6대 후손들보다 더 오래 살았으며 아브라함의 죽음 이후에도 얼마 동안 이삭과 야곱의 조상 중 유일한 조상으로 살아남아 있었다. 히브리 사람이라는 명칭은 ‘이스라엘의 자손’이라는 말과 대비되어 이방인들에게 잘 알려진 유대인들의 명칭이다. 유다에서 나온 유대인들이라는 명칭은 후에 유대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었다(왕하 16:6).

유대 민족의 창시자인 아브라함은 유랑하는 목자, 그의 아들과 손자인 이삭과 야곱도 그의 발자취를 따랐다. 열두 지파,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 야곱의 아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고 기근의 때에 자기 가족을 이집트로 불렀다.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룬 뒤에 그들은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를 탈출하여 가나안에 들어가고자 했으나 불순종으로 인해 첫 세대는 죽고 모세도 죽었다. 그 뒤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모든 지파에게 배분해 주었다. 이때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두머리들과 재판관들과 부족의 치리자들의 통치를 받으며 사무엘 시대까지 이르렀다(행13:16-23).

그 후에 왕정이 시작되어 사울이 초대 왕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그의 뒤를 이었으며 그의 가족은 바빌론 사람들의 침략이 있기까지 유다 왕국을 통치하였다. 그러나 그의 손자인 르호보암 시대에 통일 왕국은 분열되어 북쪽의 열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을, 남쪽의 유다와 베냐민은 유다 왕국을 형성하고 서로를 대적하며 지내게 되었다.

이스라엘 왕국은 아시리아에 포로로 끌려감(BC 721년), 마지막 왕 호세아(왕하17:6-23).

아시리아의 이주 정책(왕하17:24-41): 사마리아 사람들의 기원

유다 왕국은 그 뒤에 바빌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감(BC 606, 597, 586).

1차 포로기에 다니엘이 잡혀감(단1:1).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왕하25장)

바빌론에서의 70년 포로 생활(BC 606에서 536까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유대인 귀환 선포(대하36:22-23).

세 번에 걸쳐 포로들이 귀환함. 1차 귀환: 스룹바벨(BC 536, 에스라 1-6장), 둘째 성전 완공(BC516)

2차 귀환: 에스라(BC457, 에스라 7-10장), 3차 귀환: 느헤미야(BC 445, 느1-13장), 성벽 보수
에스더기는 1차와 2차 포로 귀환 사이에 일어남.

마지막 대언자 말라기(BC441), 400년간의 침묵기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점령(BC331), 알렉산더 사망(BC 323), 네 왕국으로 나뉨

팔레스타인은 시리아에 근거한 셀레우코스 왕조와 이집트에 근거한 프톨레마이오스 왕조 사이에 껴서 많은 전쟁과 고난을 겪음.

안티오크스 에피파네스가 돼지를 성전에 드림(BC 168, 단11:21-35)

이로 인해 마카비 반란: 맷다디아와 그의 다섯 아들(마카비)에 의한 해스모니아 왕조가 설립됨(BC 63년에 로마가 다스릴 때까지)

이 기간에 바리새인, 사두개인 등이 등장함.

바리새인: 그들은 구약성경의 기록된 말씀이 유대교의 근원이라고 생각하면서도 금식, 기도, 구제, 이방인과 세리들과 접촉하는 것 등의 외적 의식에 관한 한 여러 가지 전통과 규례를 첨가하였다(마6:5;

9:11; 23:5; 막7:4; 뉴18:12). 그래서 미신과 자기 의를 세우려는 형식의 틀에서 천주교와 비슷하다. 그들은 겉으로 경건하게 드러났고 거룩하게 보였으므로 보통 사람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 차례 그들의 위선과 교만과 탐욕을 책망하셨다(마6:2, 5; 23:1-39; 뉴16:14; 18:9; 요7:48-49; 8:9). 한편 그들 중에는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시므온처럼 진실로 경건한 사람들도 있었다(마27:57; 뉴2:25; 요3:1). 다소의 사울 역시 엄격한 바리새인이었다(행26:5; 갈1:14).

사두개인: 사두개라는 말은 예수님이 오시기 300년 전에 살면서 이 파를 창설한 사독에서 나왔다. 사두개인들은 바리새인들이 귀중하게 여기던 전통과 기록되지 않은 법규를 다 무시하였으며 오직 기록된 성경 말씀만 유대교의 근원이고 규칙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의 마귀론을 거부하고 천사나 영의 존재를 부인하며 몸이 죽을 때 혼도 죽고 따라서 부활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도 믿지 않았다(마22:23). 주로 고위층 사람,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 중 다수가 사두개인이었다(행23:6-9).

이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왔으나 그분의 백성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음(요1:11-13).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로마에 의해 어려움을 겪었고 결국 로마 사람들은 주후 70년 티투스(Titus)의 지휘 하에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완전히 폐허로 만들었다. 그 뒤에 예루살렘이 재건되었지만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수립되기까지 유대인들은 독립 민족으로 인정받지 못했고 땅의 모든 민족들 사이로 들어가 타국인으로 멸시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히브리 사람들의 통치 체제는 신정(神政) 통치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모든 일에서 하나님이 모든 권력을 발휘하시며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군림하시는 체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통치 체제는 모세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와 재판관들과 왕들과 대제사장들 하에서 여러 차례 변천 과정을 겪었다. 이렇게 외적 통치 체제는 변천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군주로 여겨졌다. 모세 시대, 여호수아와 재판관들의 시대, 재판관이요 대언자인 사무엘 시대에 왕을 요구함(삼상8:6-7).

히브리 사람들의 종교: 족장들 시대에 그들은 직접적인 계시에 따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행하였으며 기도와 희생 예물을 통하여 그분께 경배하고 우상숭배와 무신론을 배격하며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의 봉인으로 할례를 베풀고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은혜와 믿음의 빛을 허락하는 법규들을 따랐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집트에 오랫동안 머물면서 우상숭배를 가슴에 품게 되었다. 그래서 모세의 기적들과 우상을 피하라는 강력한 율법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진영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스런 표적 등도 그들의 가슴 속에 간직된 우상숭배 성향을 제거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기적들을 체험하고도 곧바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경배하였고 사울과 다윗도 그들의 강한 성향을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공중 앞에서 감히 하지 않는 미신적인 행위들을 몰래 사적으로 실행하였다. 그들은 산당에서 희생물을 바쳤고 점치는 자들과 마술사에게 물었다. 심지어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 이스라엘에서 우상숭배의 걸림돌이 되고 말았다. 그는 페니키아와 모압과 암몬 사람들의 거짓 신들을 위하여 제단들을 세우고 자기 아내들이 그런 것들에게 경배 드리는 것을 허용했으며 또 스스로 그것들을 동경하였다(왕상11:5-7).

포로 생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패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영광의 주님을 거절하고 죽이면서 자기들의 죄의 잔을 가득히 채웠으며 그 결과 나라로서 더 이상 존재하지 못하고 1948년에 나라로 부활하기까지 약 2000년 온 세상으로 떠돌아다니는 저주의 백성이 되고 말았다.

유대인들의 미래: 1948년에 팔레스타인에 돌아옴, 1968년에 6일 전쟁을 통해 구 예루살렘을 회복함, 성전을 지을 준비를 하고 있음. 7년 환난기(단9:25-27), 야곱의 고난의 때(렘30:7), 성전에 적그리스도가 들어감(살후2:3-4), 7년 환난기 이후 천년왕국이 이루어짐.